

해 아래서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 전도서 강해



윌리엄 맥도날드 지음  
김 대 영 옮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傳道出版社**

411-314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호  
전화 (0344) 914-2732, 팩스 (0344) 917-4520

---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Ilsan4-dong, Ilsan-gu, Koyang-shi, Kyunggi-do,  
411-314, Korea.

## 차례

약어표 .....	4
서문 .....	5
1. 모든 것이 헛되다 .....	15
2. 쾌락과 명성을 헛되이 추구함 .....	26
3.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	43
4.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 .....	53
5. 종교적인 사람들과 부자들에게 주는 충고 .....	59
6. 이 세상의 잔인한 모순 .....	67
7.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	70
8. 지혜 중의 지혜 .....	83
9. 죽기 전에 마음껏 누려라 .....	87
10.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초상화 .....	95
11. 선을 주위에 퍼뜨려라 .....	100
12. 인간 육체의 쇠퇴 .....	104
부록1 솔로몬이 구하던 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	114
부록2 나의 전도서 .....	119

## 약어표

이 책에서는 여러 성경역본을 사용했으며 주로 새 미국표준역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이 책에서 사용한 성경역본과 그 약어입니다.

ASV—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JND—다비의 새번역(New Translation by J.N. Darby's)

KJV—흠정역(King James Version)

NASB—새미국표준역(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B—새영어성경(New English Bible)

TLB—현대어성경(The Living Bible)

TEV—현대영어역(Today's English Version)

## 서문

### 현실을 찾아서

**솔**로몬은 자기 일생 중 언제인가부터 인간이 존재하는 참된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멋진 인생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충족하고 부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기에(왕상 10:14~5, 대하 9:22~24) 만일 영구적인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자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 뇌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한가지 질문 곧 “사람이 출생하고 난 후에 참된 인생이 있는 걸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해답을 찾는데 있어서 스스로 정해 놓은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 힘으로 답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시는 따로 하고 자기 자신의 뛰어난 지능만으로도 인생에서 이를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알아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궁구함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해 아래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 해 아래서

“해 아래서”라는 말은 전도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표현이 무려 스물 다섯 번이나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 책의 저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 책을 썼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저자인 솔로몬의 궁구함은 이 땅에만 한정된 것입니다. 그는 인생이라는 수수께끼를 풀려고 온 세상을 살살이 뒤집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런 궁구함은 순전히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행한 것이며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은 것입니다.

‘해 아래서’ 라는 말을 계속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 책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난제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우선 이 책은 성경의 나머지 다른 책들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이상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며, 도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은 가르침을 옳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담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 중 왜 어떤 것은 사실인 반면에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고 또 어떤 것은 전혀 틀린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1은 맞는 말이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젊은이들 모두에게 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충고입니다. 젊은이들은 청년의 때에 자기 창조자를 기억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1:4은 반쪽 짜리 진리일 뿐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땅이 영원토록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2:25,26 과 베드로후서 3:7,10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들은 액면 그대로 보자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곧 “사람이 해 아래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2:24).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3:19), 그리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9:5) 등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비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도 이같은 결론에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인가?

솔로몬이 “해 아래서” 내린 결론의 일부는 부분적인 사실에 불과하고 어떤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때 전도서가 하나님의 영감(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와 있음—역자 주)으로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물론 전도서의 특징이 그러하더라도 이 책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사실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책이 정경(正經)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으신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나머지 책들과 마찬가지로 전도서에 대해서도 축자영감(글자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역주)과 이 책이 하나님의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들도 사단이나 사람의 거짓말들을 자주 수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4에서 마귀는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만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성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영감은 사단이나 인간의 거짓말을 기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짓말을 옳다고 인정하거나 거룩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영감은 선하든 악하든 말한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서 보존한다”<sup>1)</sup>

1) L.S. 웨이퍼, 조직 신학(달라스·달라스 신학교, 1947), 83페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해 아래’ 거하는 사람의 지혜를 기록한 책이라고 분명히 분류된 책에서 불완전한 진리나 그릇된 말을 발견한다고 해서 놀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성경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신뢰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 솔로몬은 어떤 결론을 내렸니?

인생의 참 의미를 찾으려 궁구하던 솔로몬은 결국 인생은 헛되고 마음을 괴롭게 할뿐이며(1:14), 기껏해야 바람을 잡으려 애쓰는 것이라는 서글픈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자기가 판단하건대 인생은 살려고 애쓸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성취감도 영원한 만족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부유하고 지혜로운 인물이었지만 솔로몬은 참으로 가치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가 내린 결론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해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인생은 살아보아야 헛일인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다 합친대도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인물이었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텅빈 공간이 있다.”

또한 어거스틴은 “오 주님, 주께서 주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쉬기 전에는 결코 안식을 찾지 못하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궁구하던 것은 일시적인 일이었으며 단지 그의 인생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이렇게 철학적으로 궁구하기 시작했을 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이었던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궁구한 바를 이 책에 기록했을 때는 분명 그 때보다 나이가 더 들었을 것입니다(1:12, 11:9).



결국 솔로몬은 해 아래가 아닌 해 위를 바라보게 되었고 진실한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은 그가 성경 66권 중 3권의 책을 썼다는 사실을 볼 때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을 그늘지게 했던 죄와 실패는 믿는 자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또 주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예표가 되었던 인물조차도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줍니다.

### 솔로몬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는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 궁구할 당시에조차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습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마흔 번에 걸쳐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당시에 경건한 신자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이 책에서 시종일관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으로서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인 여호와는 단 한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목할만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해 아래 있는 사람도 어떤 신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20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무신론은 지혜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눈을 가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식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자기 지혜로 진리를 찾아 몸부림치는

가운데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 사는 사람이 엘로힘은 알 수 있지만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알려면 오직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비취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하나님을 거듭 언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을 받을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시 14:1, 53:1).

### 전도서는 정말 솔로몬이 기록한 것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솔로몬이 이 책의 저자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들이 놀라는 이유는 솔로몬이 저자라는 사실이 전도서 안에 있는 증거로 볼 때 명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자기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1:1,12).

이 사람은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의 다른 데서도 이 사람이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엄청난 규모의 건물 공사의 비용을 지불하고, 쾌락을 누릴 거의 무한정의 기회를 가진 사람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들은 솔로몬에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 이 책에서 발견되는 많은 단어들과 문법구조들이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 쓰던 것이 아니고 바벨론 유수 이후에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대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인용한 이 책 속의 증거들에 대해서는 훗날에 이 글을 기록한 이가 자기가 한 말을 솔로몬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문학적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글을 썼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듯 온갖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살펴보는 것을 삼가겠습니다. 다만 솔로몬이 저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어떠한 주장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말로써도 충분한 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리슨 아취와 같은 책임있는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믿는 것은 여전히 가장 확실한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왜 전도서가 기록되었을까?

이 책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해 위로 결코 떠오르지 못하는 책을 성경에 포함되도록 정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즉 이 책이 성경에 들어 있는 것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 애쓴 솔로몬의 비참한 체험을 아무도 다시 겪게 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

- 육에 속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재산이나 쾌락을 통해서, 혹은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마약이나 술, 방탕한 성생활에 빠져들든지 아무튼 자기 힘으로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교훈은 우리들 대부분보다 더 지혜롭고 돈도 많았던 한 사람이 온갖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실패를 맛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 아래가 아닌 해 위로, 그 위에 계셔서 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금전적 낭비와 마음의 고통과 좌절과 실망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은 다음과 같은 고백의 글을 통해 전도서가 씌어진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가는 도중에 겪은 것을 나 말고 다른 이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sup>2)</sup>

## 이단들은 전도서를 좋아한다

전도서는 이단 종파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단들은 전도서를 열성적으로 인용하여 자기들의 이단 교리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특히 죽음과 그 후의 일을 다루는 교리에 대해 더욱 열을 내어 전도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전도서에서 몇 구절을 인용해서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자게 된다, 또 악인은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멸절당하게 된다는 등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들은 그런 구절들이 쓰여진 문맥은 무시하고 억지로 그 구절만 빼내어서 영혼의 불멸과 영원한 형벌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문에 열쇠를 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눅 11:51 참조—역주). 이들은 자기들에게 회생된 교인들에게 전도서는 해 아래 있는 사람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얻기 위한 본문으로 쓰기에는 합당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 전도서가 어렵기는 누구나 마찬가지다

만일 여러분이 전도서는 유난히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여기신다면 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은 모순되게 보입니다. 그가 관찰한 많은 것들이 논리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가 한 말 중 어떤 것들은 너무 애매모호해서 주석가들을 절망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주 솔로몬의 가

2) 클리슨 아취의 '구약 개론 입문'(시카고:무디 출판사, 1974) 478~488 페이지를 보라.

르침은 너무나 혼동스러워서 우리도 역시 낙망한 나머지 그만 손을 들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책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의미를 더듬어 찾으려던 한 사람의 기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의 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의 철학은 그 특징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과 똑같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글을 쓸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도서를 구절별로 공부하게 될 때 이 책이 지닌 한계와 관점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전도서를 성경의 다른 책들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 1

##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책을 쓴 저자는 1:1에서 자신을 가리켜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라는 말이 흥미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코헬렛’인데 그 뜻은 ‘부르는 사람’ 또는 ‘모으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스테스’이며 그 뜻은 ‘모임을 소집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원뜻에서 이 단어는 여러가지로 해석되어 왔는데, 곧 ‘소집하는 사람, 모으는 사람, 말하는 사람, 논객, 대변인, 그리고 전도자’ 등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자나 아니면 그보다 더 후대의 자손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밝힌 대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유일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12절). 나머지 후손들은 모두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임금들이 속한 다른 왕조들은 도움을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왕상 12:25)이나 사마리아(왕상 16:24)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소개한 솔로몬은 즉각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2절). 전도서 마지막 장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해 아

래서 솔로몬이 찾고 궁구한 모든 것의 결과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시요, 날아가며, 쓸모 없고 공허하며 무익할 뿐입니다.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이 땅 위의 어떤 것도 우리가 존재하는 정당한 목표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이런 인생이 전부라면, 사망이 인간 존재의 막을 내리고 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인생은 수증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껌테기뿐이요 덧없는 것일 따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들어온 결과로 피조물이 다 헛되고 무익한 것에 복종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롬 8:20). 그러므로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고 지은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이름은 ‘헛되다’는 뜻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말은 옳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됩니다.

솔로몬은 3절에서 연약한 인간의 일생은 수고와 일로 가득차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말해보았을 때 그런 수고와 일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에 매여 지치도록 돌아보아도 조금도 진전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왜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는 “물론 돈벌자고 하는 거지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돈은 왜 필요한 걸까요?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먹을 것이 필요할까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자 이제 맨 처음 시작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음식을 사기 위해 돈을 벌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 것을 삽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헨리 쏘로우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은 조용한 좌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한 그리스도인



이 뭐 도와줄 것이 없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저 사는 게 피곤하고 싫증 나서 그래요. 남편은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은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나갔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네 아이들 아침을 차려주고 도시락을 싸주고는 나도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퇴근해서 집안 일을 이것저것 하고 난 뒤 몇 시간 자고, 또 그 다음날도 똑같은 일과가 되풀이되죠. 이런 늘상 반복되는 똑같은 생활이 그만 지긋지긋해 그런 것 같네요.’”

H. L. 멘켄이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인생에서 체험하는 근본적인 사실은 인생이 비극이 아니고 파분하다는 것이다. 인생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기 보다는 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sup>1)</sup>

사람의 목숨이 너무나 덧없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자연환경이 외관상으로는 영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과 눈에 띄게 대조가 됩니다(4절).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오는데 이것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해 아래서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는 끝까지 버티리라고 꿈꾸지만  
그러나 그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빨리 사라지고 마는지!  
(월 H 호우튼)<sup>2)</sup>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

1) H.L. 멘켄 저, '이제 혁명을'(Revolution Now)에서 빌 브라이트 인용 (산 베르나르디노:CCC 발행, 1969), 15페이지

2) 월 호튼 저, '죽거나 살거나'(호프 출판사)에서 저자의 허락으로 인용

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현재의 지구가 영원히 존재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우리에게 이 땅과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주의 날에 다 불에 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벧후 3:10).

5절에서 솔로몬은 자연은 끊임없이 그리고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순환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는 동쪽에서 떠서 하늘을 돌아 서쪽으로 지며, 그런 다음에는 떠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서 다시 동쪽에서 해가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러한 자연현상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자기는 한날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누구라도 해는 실제로 가만히 있고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해가 움직이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과학적인 큰 실수라고 그를 공격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공격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단지 사람의 눈에 나타난 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해가 떠서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말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계속되는 자연현상에 대한 솔로몬의 사색은 계속해서 6절에도 나타납니다. 바람은 계절에 따라 늘 규칙적으로 불니다. 겨울에는 북풍이 이스라엘에서 남쪽의 네게브 사막까지 불고 여름이 되면 남풍이 불어 더위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루할 정도로 똑같이 바람은 이러한 순환 규칙대로 불며 인간세상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저 왔다가 사라져 갑니다.

땅과 해, 바람뿐만 아니라 물도 역시 똑같이 단조로운 과정을 수

백 년이고 계속 되풀이합니다(7절). 강은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결코 바다가 넘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엄청나게 많은 물들을 증발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엔 공기가 수증기를 식혀서 응축하게 되고 나중엔 구름이 형성됩니다. 구름은 또 하늘을 누비고 다니다가 비나 눈, 아니면 우박의 형태로 물을 육지에 공급해줍니다. 그리하여 강에 물이 너무 많아 넘치게 되면 다시 그 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자연의 끊임없는 활동을 보면 사람은 자기의 끝없는 수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크리스토퍼슨이 “나는 영원히 흘러도 바다에 닿지 못하는 강이다”라는 글을 썼을 때 아마도 전도서 1:7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한정된 인간의 삶은 따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이 모든 단조로움과 지루하고 헛됨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8절). 사람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보아도 사람은 더욱더 원할 뿐입니다. 그 귀는 이제 새로운 것은 그만 듣고 싶다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사건, 새로운 구경거리, 새로운 소리를 찾아 끝없이 그리고 미친듯이 돌아다닙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는 원초적인 갈망을 좇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좇아다닌 후 돌아와도 불만은 여전하고, 사는 것은 지루할 뿐입니다. 사람은 온 세상으로도 그 마음에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직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해 위로 올라가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시 107:9).

“세상의 즐거움은 날아가니 헛된 것 뿐일세.

눈부시게 밝은 빛도 헛되고 쌓아놓은 재산도 헛되도다.

화려함과 영광도 헛되네.

오직 주께서만 주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강과 만족을 주실 수 있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주 예수여, 주님 같은 분은 없나이다.

주린 영혼에게 주님 같은 분은 없나이다.”

(작자 미상)<sup>3)</sup>

솔로몬이 얻은 깨달음의 또 한가지 특징은 그가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9,10절). 역사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아 무척이나 애를 쓰며 다녔지만 오래지 않아 그렇게 한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새 것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최근에 이뤄진 발견이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사실은 태초에 이미 창조 속에 들어있던 원리를 개발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자랑하는 업적들은 이미 자연 속에 있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새들은 사람이 비행기로 날기 이미 오래 전에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우주여행조차도 새로운 것이 못됩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산소 탱크를 휴대할 필요도 없이 우주를 넘어 옮기워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롭고 진기한 것을 찾느라고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은 기필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오래 전,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 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10절).

사람이 삼켜야 되는 또 하나의 쓰디쓴 알약은 11절에 나와 있는

3) 작자 미상, '주 예수님, 당신만이 혼로', 은혜와 진리의 관송 중에서(넬톤, 뉴저지:로젝트 브라더스, 220 페이지)

대로 자신이 잊어버리고 또 잊혀지는 속도입니다. 항구적인 명성이란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증조부의 이름을 기억하기가 무척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에 미국 부통령을 역임한 네 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욱 적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고, 빨리 잊혀지며 이 땅위의 인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처럼 돌아갑니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인생 최고의 선을 찾으려고 다녔던 순례길을 우리를 위해서 더듬어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으며(12절), 이에 덧붙여서 자기가 누린 부와 지위와 능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암시하는 모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 전도자는… 왕이었다”(우리말 성경에는 ‘왕이 되어’라고 나와 있음—역주)라고 말할 때 자신의 통치가 이미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왕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1절).

13절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 행복을 찾아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지적인 경로를 통해 찾아보리라고 결심합니다. 그저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받는 데에 몰두합니다. 연구조사, 탐험, 종합, 그리고 분석, 귀납, 연역추리 등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학문이 인생의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려 주는 깊은 내적 충동인 이 학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몰두하도록 허락하시는 불행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필자는 그와 유사한 결론에 이른 우리 시대의 한 현인(賢人)이 생각납니다. 말콤 머저릿쥐는 ‘다시 발견한 예수’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회대의 우상이요 사기꾼인 교육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 준비를 시켜주겠다고 하며, 또 청소년 범죄에서부터 노인성 정신질환의 조기 발병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대부분 사람을 더 어리석게 만들고 자부심만 늘게 하며, 남의 말에 더 쉽게 현혹되게 만들 뿐 아니라 교육에 매인 사람들로 하여금 인쇄기, 라디오, 텔레비전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세뇌기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다.”<sup>4)</sup>

최근에 누군가가 한 대학 도서관의 벽에 붙고 검은 글씨로 ‘무관심의 법칙들’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써놓았습니다. 누군가가 수백 년 전 솔로몬이 이미 발견했던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던 것입니다. 곧 교육은 결코 인생의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확실한 지름길이 아니고 그 자체로 볼 때는 그저 따분한 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적인 추구는 인생에서 대단찮은 역할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은 그 나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위치는 그리스도의 발아래 놓여 있을 따름입니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목적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언급했다고 해서 그가 개인적으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

4) 말콤 머저릿쥐 저, ‘다시 발견한 예수’(가든 시티, 뉴욕:더블데이, 1969), 11페이지에서

님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은 W. J. 에드만이 일컬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본래 이름인 엘로힘입니다.<sup>5)</sup> 서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엘로힘이란 이름은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어떤 곳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로, 즉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보이시는 하나님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음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자기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고 부끄럽없이 말한 데에서도 분명해집니다(14절). 그의 이 말은 곧 자신이 과학, 철학, 역사, 미술, 사회과학, 문학, 종교, 심리학, 윤리학, 언어, 그리고 다른 분야의 사람의 학문에 대해 상당한 지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학위를 줄줄이 따고 학위증서로 온 방을 도배했어도 그는 자기가 찾는 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는 이러한 학문의 추구가 다 바람처럼 잡을 수 없는 것을 헛되이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책을 공부한다고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그만 낙담했습니다. 세상에는 굵어서 펴 수 없는 것들과 잃어버려서 셀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15절). 로버트 로린이란 사람은 “인생은 풀 수 없는 온갖 모순과 변태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또 거꾸로 인생엔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할만한 것이 너무나 없다”<sup>6)</sup>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달까지 비행할 수 있지만 별의 비행은 여태 알려진 모든

5) W. J. 에드만 저, '전도서'(사카고, B.J.C.A, 1969), 11페이지에서

6) 로버트 로린 저, '전도서', 위클리프 성경주석에서, 찰스 F. 파이퍼와 에버렛 T. 헤리슨 편집(사카고:무디, 1962), 587페이지에서

항공공학 법칙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원자의 비밀을 밝혀내었지만 번개를 제어하지도, 또 거기서 발생하는 전력을 저장할 줄도 모릅니다. 소아마비나 결핵같은 질병은 통제할 수 있지만 혼한 보통 감기는 여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온갖 학문을 두루 섭렵한 뒤 솔로몬은 자기 나름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16절). 그는 자기 앞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던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가 많다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왕상 4:29~31; 대하 1:12). 그의 지성은 엄청난 양의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기의 가진 지식을 실제적인 일상에 적용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당하게 평가할 줄 알았습니다.

17절에서 솔로몬은 자기가 지혜를 얻으려고 어떻게 자기를 훈련했었는지, 또 한편으로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도 배우던 것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흑이나 돌 중 어느 쪽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인간 행동의 양극단을 탐색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맨 꼭대기까지 다 경험해 보았으나 솔로몬은 비참한 심정으로 이 모두가 바람을 잡으려 함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합니다.

그로부터 수백년 지나 헨리 마틴이라는 한 젊은이는 캠브리지 대학의 수석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여 결국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위업을 달성한 시점에 이르러 그는 “내가 그림자를 잡았다는 것을 보고 놀라고 말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J. W. 조렛이 말한 바와 같이 허탈하나 복된 깨달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눈이 세상 학문을 섭렵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완전한 만족을 주는 상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식 추구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푸는 열쇠라면 우리네 대학 캠퍼스들은 평화와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각축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학은 소란과 불안으로 들끓는 가마솥입니다. 터키 사람처럼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큰 잔에 커피를 아스피린과 함께 몇 잔이고 마셔대는 대학생을 그린 오래된 풍자화는 솔로몬이 18절에서 내리는 결론과 잘 어울립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더 지혜로울수록 걱정은 더 많아진다. 더 많이 알수록 마음 상할 일이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따르자면 “모르는게 약이다”라든지, “모르면 속상할 일도 없다”와 같은 세상의 격언들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 2

### 쾌락과 명성을 헛되이 추구함

지적인 추구로 인생의 성취감을 얻지 못한 솔로몬은 2장에서 쾌락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1절). 쾌락을 충분히 누릴 수만 있다면 사람이 행복해지리라는 것은 합리적인 것같다고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쾌락, 또는 낙(樂)은 정의를 내리자면 개인적인 욕망을 채움으로써 얻게 되는 즐거운 기분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마음껏 이 낙을 누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욕감을 자극하는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해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쾌락의 잔을 넘치도록 마시면 결국엔 더 이상 마음에 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의 쾌락은 헛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받은 실망은 다음 식구에서 메아리쳐 울리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터진 웅덩이로  
만족을 얻으려 했나이다  
아, 그러나 그만 물이 다 새고 말았나이다  
내가 구푸려 마시려 하자 물이 도망가고  
내가 올 때 나를 조롱하였나이다.”

(B.E.)<sup>1)</sup>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낙을 누리는 것을 반대하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세상은 참 낙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참된 낙은 오직 해 위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즐거움이 가득하고 주의 우편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나이다”(시 16:11).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낙을 가장 사모하시는 분입니다.

영화와 TV, 그리고 다른 광고매체들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 자기들의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엄청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터진 응덩이와 시궁창일 뿐이지만, 반면 하나님은 생명의 샘을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공허한 모든 웃음을 돌이켜 생각해볼 때(2절), 솔로몬은 그 웃음이 미친 것이라는 것과 자기의 좋던 시절도 사실상 아무 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웃음 뒤에는 슬픔이 있고 남을 즐겁게 해주려는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먼저 개인적인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빌리 그래함은 자신의 저서 ‘행복의 비결’에서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한 환자가 정신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병을 치료하고자 온갖 것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다 허사였

1) B. E.,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족을 주실 수 있네!’ 진리와 찬미의 찬양 중에서(포트 닷지, 아이오와: Gospel Perpetuating 출판사, 1971), 306장

습니다. 아침에 잠이 깨면 마음은 산란하고 우울했으며 날이 갈수록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제 그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떠나기 전 의사는 그 지방의 한 극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쇼의 주인공은 이태리인 광대인데 관객들을 매일 밤 요절복통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환자에게 그 쇼를 한 번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몇시간 동안 한바탕 웃고 자기의 고통을 잊어버리면 치료엔 특효일거라고 했습니다. “자 가서 그 이태리인 광대를 보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울상이 되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광대입니다.” 이 광대도 솔로몬처럼 웃음에 대해 “미친 것이다”라고, 또 쾌락은 “그게 무슨 쓸 데가 있느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남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걱정거리도, 필요한 것도 없다고 상상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E. A. 로빈슨은 “리처드 코리”라는 자신의 시에서 우리의 이런 상상을 여지없이 깨뜨려놓고 있습니다.

“리처드 코리가 시내로 올 때면  
길가던 우리는 늘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신사였지요  
참 깔끔하고 입금같은 풍채에 몸도 날씬했었죠.

“그 사람 언제나 옷차림이 압전했고  
그가 말하면 늘 인간적인 풍모가 배어나왔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면  
뭔가 마음에 와닿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이 걸어가면 빛이 났었죠.

“그 사람은 참 부자였어요.  
 예, 정말이지 왕보다 더 부자였어요.  
 그리고 온갖 품위있는 교육을  
 훌륭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생각은 이랬어요.  
 그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사람만큼만 됐으면 좋겠다고요.”

“여느 때처럼 우리는 계속 일했고  
 언젠가 별들 날을 기다렸죠.  
 고기도 못 먹고 살던 우리는 빵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용한 여름날 밤에 리처드 코리는  
 집에 가서 자기 머리에 총을 쏘고 말았습니다.”<sup>2)</sup>

구약의 탕자 솔로몬은 이제 술로 관심을 돌립니다. 세계 최고의 명주들을 맛보는 미주가(美酒家)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혹 세상에 서 가장 기가 막힌 술을 맛볼 수 있다면 온 몸과 영혼이 만족하고 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쾌락 탐닉을 제어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면모는 “나의 마음이 나를 지혜롭게 지도했다”(3절)고 한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무절제나 술취함에 자기를 내맡기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독한 술에 중독되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찾으려는 그의 탐색 어디에도 그가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암시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 ‘밤의 아이들’에서

그가 시도해본 또 다른 것으로는 어리석은 일이었는데, 곧 아무 해가 없고 재미있는 우스개 따위였습니다. 지혜가 해답을 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솔로몬은 그 정반대의 것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때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주 영리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도 그냥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찮은 일들, 탐닉, 오락 따위에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이것은 해 아래서 날아가는 자기의 짧은 일생동안 몰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필사의 방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해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시작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4,5절).

만일 교육, 쾌락, 술, 어리석음에 인생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재산을 소유하는 것에는 틀림없이 그 열쇠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호화로운 집을 짓고 수만평의 포도밭을 일구었습니다. 그가 여기에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공원과 정원이 딸린 엄청난 큰 집을 지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낙원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온갖 과실이 열리는 나무들이 곳곳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친구들을 여기에 데려와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구경하게 하는 모습이며, 그들이 자아내는 경탄과 놀라워하는 말을 들으며 마냥 흐뭇해하는 모습을 그려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솔로몬의 손님들 중에는, 사무엘 존슨이 이와 비슷한 백만장자에게 했던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존슨은 그 호화로움과 웅장함을 다 보고나서 “이전 사람이 죽기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엔 여전히 자기에게 속고 있는 백만장자들이 있습니다.

안테르센의 동화 '임금님의 옷'에 나오는 임금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 임금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옷이라고 자기가 믿고 싶어하던 옷을 입고 행진을 했습니다만, 어린 꼬마조차도 그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큰 집은 너무나 방대한 규모여서 무덤고 건조한 여름에는 물을 끌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호수와 연못 외에도 필요한 운하, 도랑, 배수로도 만들어 물을 수송했습니다(6절).

만일 재산을 쌓아서 평안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면 그는 그런 행복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우리들과 같이 참된 희락은 미친듯이 재산을 늘리는 데서 얻지 못하고 오히려 멋진 포기에서 얻는 것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는 떡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에 수고를 바쳤던 것입니다(사 55:2)

왕의 큰 집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수많은 종들이 필요했으므로 솔로몬은 남녀 종들을 고용했습니다(7절). 더 나아가 그에게는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의 일면은 섬김을 받는 데 있었습니다. 상에 앉는 것이 시종드는 것보다 더 위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노예 중의 노예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에서 위대한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닌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막 10:43~45; 눅 9:24~27).

예루살렘에 살았던 다른 어떤 사람이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가족들이 솔로몬의 목장에서 풀을 뜯었습니다. 명성이 행복한 삶을

얻는 열쇠라면 솔로몬이야말로 그 열쇠를 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명성은 그렇지 못했고 솔로몬 또한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 모든 것을 구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생을 받았던 것이다.”

솔로몬의 재정적인 기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금과 은이 풍부했고 왕들과 각 성의 보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거둔 세금이나 정복한 땅에서 가져온 보물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혹은 시바의 여왕같은 유명인사들의 방문을 통해 선물로 받은 물건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음악도 시도해 보았습니다(8절).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매혹하는 힘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재능이 뛰어난 남녀 가수들을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뉴스는 그곳에서 벌어진 모든 대중 음악공연들을 격찬하는 이야기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솔로몬은 궁중 공연도 하게 했을터인데 가령 저녁음악회나 실내 앙상블 같은 것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음악에서 받았을 실망은 사무엘 존슨의 ‘아비시니아 왕 라셀라스의 일대기’란 글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악사와 가수를 부를 수 있지만, 어제 날 즐겁게 하던 소리가 오늘은 싫증이 난다. 내일은 더 싫증이 날 것이다. 나는 즐거운 일에 기꺼이 만족할줄 아는 감각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가 없다.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떤 만족도 주지 못하는 은밀한 감각이 있는게 틀림없다. 아니면 반드시 만족을 시켜줘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의 감각이 알지



못하는 어떤 욕망들이 있는게 틀림없다.”<sup>3)</sup>

솔로몬은 또 섹스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술과 노래뿐만 아니라 여자도 취해본 것입니다. 술, 여자, 그리고 노래! “인생들의 기뻐할 처와 첩들”(8절)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은 부인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음을 사실대로 전하고 있습니다(왕상 11:3). 솔로몬은 이렇게 하면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온갖 시기, 험담, 비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섹스가 행복과 인생의 성취감을 맞출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일처제의 결혼생활 안에서는 사실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섹스의 남용은 불행과 자기파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오늘날의 성도착중에 희생된 한 여인이 나중에야 자기는 속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섹스가 뭔가 희한한 마약같은 것처럼 되어서 현란한 불빛을 내는 도박장의 기계처럼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바랬으나 봐요. 그렇지만 이 도박같은 게임이 끝났을 때 나는 떼어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다야? 정말 이게 다란 말야?’라고 말합니다.”<sup>4)</sup>

그리하여 솔로몬은 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9절). 그는 명성의 대열에서 자기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능가한 만족을 누렸습니

3) 사무엘 존슨 저, ‘아비시니아 왕 라셀라스의 일대기’, J. P. 하디 편집(런던,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1968).

4) 데이빗 트랜 인용, ‘왜 부인들은 자기 남편을 속이는 걸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1973년 8월호), 123 페이지

다. 그 만족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었든지 간에 말입니다. 이렇게 온갖 실험과 여행을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에게는 타고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은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만족을 찾으면서 솔로몬은 비용을 전혀 아끼지 않았습다. 그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보면 그것을 샀습니다(10절). 쾌락을 쫓 누리고 싶다 싶으면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렇게 지칠줄 모르고 끊임없이 물건을 사고 무엇을 하는 가운데 솔로몬은 일종의 만족감을 누리 보았습니다. 이 순간적인 즐거움이 그토록 인생의 낙과 소유를 찾으려고 바친 노력에 대한 보상의 전부일 따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자기가 한 모든 것과 자기가 바친 수고를 다 모아 보았습니다(11절).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공허하고 무익하여,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을 따름입니다. 해 아래서 영원한 만족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루터와 같이 그는 “이 세상 제국은 몽땅 개에게 던져줄 부스러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신물이 났습니다.

일류 만화가인 랠프 바튼이란 사람도 세상에 신물이 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여태 어려운 일은 겪어본 적이 거의 없으며,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큰 성공도 거두었다. 부인도 여러번 바꾸었고, 집도 여러 채 살아 보았으며, 세계의 대국들을 방문해 보았다. 그러나 하루 24 시간을 채울 방책들이 이제 넉더리가 난다.”<sup>5)</sup>

5) 랠프 바튼 저, 더니스 알렉산더 인용, ‘과학을 초월하여(Beyond Science) (필라델피아:홀먼 출판사, 1972), 123 페이지. 라이언 출판사의 허락으로 인용

쾌락과 재산을 소유해도 사람의 마음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 소설 속의 인물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뭘 원하면 즉각적으로 가졌습니다. 그가 집을 원하자 문에 하인들이 늘어선 집이 생겼습니다. 캐딜락 자동차를 갖고 싶어하자 운전수가 딸린 캐딜락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우쭐했지만 이내 점점 싫증이 났습니다. 그는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어. 고생도 해보고 싶어. 여기 있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고 말겠어.’ 그러자 종이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sup>6)</sup>

여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와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물질주의의 지옥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궁구함의 결과가 낙심천만인 것이 되자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지 갈피를 못잡게 되었습니다(12절). 그리하여 이 문제를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품을 좇아가는 것이기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즉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즐기는 자보다 뭐가 나올게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거기에다가 지혜롭고 돈도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찾을 수 없다면 그 후대의 누가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뒤에 오는 어떤 사람도 이 주제

6) E. 스탠리 존스 저, ‘영적으로 자라감’(내쉬빌: 에빙턴 출판사, 1943), 4페이지.

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내린 전체적인 결론은 지혜는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과 똑같이, 또 그만큼 더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이었습니다(13절). 지혜로운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고 그 중도에 위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서 더듬다가 온갖 도랑과 구렁이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잇점이 있기는 해도 결국 어리석은 사람과 무슨 차이가 나는 걸까요? 두 사람 다 결국엔 죽게 되며 지혜가 아무리 많은들 자기가 죽게 될 날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14절).

15절에서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운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자 왜 자기가 그토록 지혜를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가치있게 보았던가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지혜가 가치있는 면은 바로 자기의 가는 길을 비춰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면 지혜는 우매함보다 조금도 더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도 엄청난 노력의 낭비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깨달은 자기의 생각을 16,17절에서도 계속 진술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지혜로운 자이건, 어리석은 자이건간에 속히 잊혀지고 맙니다. 한 두 세대가 지나면 마치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산 적도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중요하게 보이는 이름과 얼굴들이 망각의 세계로 빠져들고 맙니다. 영원한 명성에 관한 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게 조금도 없습니다.

명성은 덧없고 사람은 죽으면 신속히 잊혀진다는 냉혹한 사실을 깨닫게 된 솔로몬은 사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는 해 아래서 벌이는 사람의 활동을 통해 만족과 인생의 성취감을 찾지 못한채 슬픔만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을 깨닫게 된 솔로몬은 괴로웠습니다.

전에 명성을 떨친 바있는 한 운동선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은 내가 큰 경기에서 처음으로 결정적인 골을 넣고 환호하는 관중들의 우렁찬 함성을 들었을 때였다. 그러나 그날 밤 내 방에 조용히 들어왔을 때 그게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결국 골을 집어넣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던 말인가? 골 넣는 것보다 더 가치있는 일이 내 인생에 없던 말인가? 이런 생각은 내가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찾아나서게 된 시초였다. 나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나의 이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았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찾지 못하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sup>7)</sup>

솔로몬을 가장 괴롭힌 이 세상의 부당한 것들 중 하나는 자기가 쌓은 부를 자기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18절). C. E. 스튜어트는 “사망은 쾌락이라는 나무의 뿌리에 사는 벌레다. 그 벌레는 쾌락을 망치고 오락을 시들게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여러 해를 수고하여 일구어 놓은 열매를 드디어 거두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데려가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자기의 후계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더욱 심난하게 만드는 것은 후계자가 지혜롭지

7) Choice Gleanings Calendar(그랜드 레피즈:가스펠 콜리오 출판사).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19절).

그 사람은 돈을 물쓰듯 하고, 어리석고, 바람둥이에, 게으른 사람 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는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수고도 계획도 아니한 엄청난 재산을 허비하는 일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참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혹 그가 자기 가문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경고를 미리 받았는 지도 모릅니다. 혹 그는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가 그토록 고생해서 모아놓은 재산을 어리석게도 모두 허랑방탕하게 써버릴 것을 미리 내다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르호보암이 바로 그런 일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모사들의 말을 듣기를 거부함으로써 르호보암은 왕국의 분열을 재촉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그는 성전의 보물로 그들을 매수했습니다. “금방패들이 몰수히 애굽의 창고로 들어갔고 르호보암은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더라”(대하 12:9,10을 보라)

자기 평생의 수고와 부를 아무 자격없는 후계자에게 모두 물려줘야만 한다는 것을 예상할 때 솔로몬의 마음은 우울하고 침통해졌습니다(20절). 이것은 너무나 말도 안되고 불합리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자기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지혜로운 투자와 민첩한 사업 결정, 노련한 조치를 통해 금전적인 자산을 일구어 놓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한 수고에 손가락 하나 까딱한적 없고 걱정 한번 해준 적이 없는 사람에게 모조리 넘겨주어야만 한다는 사실은 솔로몬의 마음을 심히 번뇌에 빠지게 했습니다(21절). 이것이야말로 모순이요 엄청난 재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부모들은 결국은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쌓느라고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정이란 다 그런 것이라며 자기의 행위를 도덕적 의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러나 제미슨, 포셋, 브라운 이 세 사람의 주석가들은 여기에 대해, “세속적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한 대비라고 주장하는 뿌리에는 대체로 이기심이 숨어 있다”<sup>8)</sup>는 해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자기 노년을 호화롭게 보내려고 준비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 자녀들이 남은 것을 물려받게 되는 것은 그 부모들이 죽게 된 결과일 뿐이고 또 상속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들이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영적인 재산이지 금전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언으로 남겨진 돈은 차라리 없었다면 행복하고 단란했을 가족에게 심각한 시기와 불화를 일으켜온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갑작스레 큰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악들이 따르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돈에 대한 영적인 해결책은 곧 이 돈을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일에 바치는 것입니다. 혹 전혀 자격이 없거나, 배운망덕하고, 심지어 구원받지도 못한 자식에게 이런 돈을 남겨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드렸을 때 자기 가족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장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8) 로버트 제미슨, A. R. 포셋, 데이빗 브라운 공저, ‘신구약 주석’(Critical and Experimental Commentary on the Old and New Testament, 그랜드 래피즈:어드먼즈 출판사, 1961), 3:518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음이니이다. 내게는 집도, 땅도, 내가 죽은 뒤에 물려줄 돈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내게 아내와 자식들을 주셨는데 이제 이들을 주께 돌려드리나이다. 주님, 이제 이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며, 보존하시기를 저에게 해 오신 것처럼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마음에 근심한 모든 것의 결과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립시다(22절). 사람은 애를 쓰고, 무던히 일하고, 조바심을 내며 안달하지만,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한들 자기가 죽고난 5분 후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영원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말입니다(고전 15:58).

그러나 무덤 너머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고통과 괴로운 일로 가득하고, 그 밤은 수없이 돌아 누우며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이 사실입니다(23절). 인생은 거대한 좌절의 덩어리요, 격정과 마음의 고통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실상이 이러하므로 오직 해 아래서 존재하는 것이 전부인 인간에게 있어서 논리적인 인생철학은 먹고 마시고 매일의 노동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지는 것입니다(24절). 전도자는 탐식과 술취함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가능한 한 어디서든지 인생의 평범한 일들 속에서 낙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조차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곧 사람이 보통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좋은 음식을 맛보는 것, 맛있는 음료수로 누리는 좋은 기분, 그리고 정직하게 일해서 얻는 만족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이런 것을 누릴 힘이 없습니다.

훗날의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은 솔로몬의 견해가 옳은 것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최고의 상책은 “내일 죽을터이니 먹고 마시자”(고전 15:32)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전도서 2:24로 돌아가서 솔로몬이 관찰한 사실을 보면, 먹는 능력과 그외 다른 방법으로 즐거움을 찾는 능력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평범한 낙조차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이며 식욕, 소화, 보는 것, 듣는 것, 냄새맡는 것, 기억, 건강, 온전한 정신, 그리고 또 정상적이고 즐거운 체험을 하게 해주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솔로몬은 덧붙이기를 자신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누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부(巨富) 존 D. 록펠러는 매주 수입이 약 백만불에 달했지만 그의 주치의들은 하나같이 그가 몇 센트 이상의 음식은 못 먹게 했습니다. 그의 전기를 썼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록펠러는 거지라도 업신여겼을 음식으로 연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체중이 백파운드도(약 40킬로그램) 안나가는 록펠러 씨는(아침식사 때) 모든 음식의 샘플만 맛보아야 했다. 즉 커피 한 방울, 찌리얼 한 숟가락, 포크로 한번 먹을만큼의 계란, 그리고 완두콩 크기만한 고기가 전부였다.”<sup>9)</sup>

그는 세상에서 제일가는 부자였지만, 자기 먹을 것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은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26절),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의는 상을 주시며 죄는 벌하신다는 인생의 대원칙을 발견했다고 여기게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에게는 힘든 일을 주사 그 일이 점점 쌓여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그토록 고생한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어떤 사람에게 넘겨주게 하십니다. 무엇이 이보다 더 무익하고 더 낙담이 될 수 있겠습니까?

---

9) 줄스 에이벨즈 저, 'The Rockefeller Billions'(뉴욕:맥밀란 출판사, 1965), 299페이지

## 3

##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인생과 인간행동을 조사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솔로몬에게는 모든 것이 미리 정해진 때가 있고 모든 사건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3:1).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활동을 거대한 컴퓨터에 이미 입력해 놓으셨다는 뜻이며, 스페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케세라 세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즉 미래에 될 일은 그대로 미래의 일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역사는 정해진 형태대로 계속 돌고 도는 일들로 가득차 있고, 이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규칙에 의해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융통성 없는 법칙 혹은 원리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행동 유형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운명론의 시계와 달력에 매여 있는 노예인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들에서 전도자는 28개의 활동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들은 인생의 전모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28이란 숫자 때문인데 즉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 4에다가 완전을 의미하는 7을 곱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든 목록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네 개는 긍정적인 것들이고 나머지 열네 개는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들은 서로 상쇄하므로써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영(0)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태어나는 때가 있습니다(2절). 그러나 사람 자신은 이 시기를 전혀 조절할 수가 없고 부모조차도 정상적인 출산을 위해서는 9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또 죽는 때가 있습니다. 시편 90:10에 따르면 사람에게 정해진 수명이 70년입니다만,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죽음은 반드시 지켜지는 예정된 약속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 수명이 얼마가 될지 미리 아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병적인 것도, 혹은 치명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가 할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죽을거라고는 단정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복된 소망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죽음의 사자보다는 구주를 기다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이 말들로 솔로몬은 연중 계절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사의 전 분야를 망라해서 일컫고 있는 것 같습니다(창 8:22). 심고 추수할 때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면 큰 재난이 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다”(3절). 성경주석가들은 이 구절이 결코 살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전투나 사형, 아니면 자기 방어를 가리킨다는 설명을 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관찰이 해 아래서 얻은 자기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기에 솔로몬에게 인생은 도살장이나 병원, 전쟁터나 혹은 옹금실 정도로 보였던 것입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3절). 처음엔 철거반원들이 낡아서 더 쓸 수 없는 건물들을 부수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엔 건축자들이 들어와서 현대식 복합건물들을 짓고 빈민굴을 재건축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4절). 인생은 희극과 비극이 서로 번갈아 상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생이 비극배우의 검은 가면을 쓰고 있지만 곧 광대의 분칠한 가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4절). 슬픔 속에 조문객들은 애곡하고 장례행렬은 그 곁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장례식에서 울던 바로 그 사람들이 얼마 전의 그 슬픔은 순식간에 사라진 채 결혼 피로연에서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5절). 액면 그대로 본다면 이 말은 밭을 경작하기 위해 땅을 깨끗이 치우는 때가 있으며(사 5:2), 그런 다음에는 집이나 담장, 혹은 큰 공사를 하기 위해 돌을 모으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일 대부분의 주석가들처럼 이 구절을 비유로 한 말씀으로 여긴다면 결혼생활을 언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부부관계를 가질 때도 있고 안 가질 때도 있다”고 풀어 놓았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으며”(5절). 애정의 범주에서 볼 때 사람은 애정에 푹 빠질 때가 있고, 또 애정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순결할 때가 있는가하면 불순할 때도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6절). 이 구절은 사업에서 수시로 이익과 손해가 등락을 거듭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처

음은 시장경기가 좋아서 수입이 치솟습니다. 그러나 이내 시장이 불황을 겪게 되어 기업체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6절). 주부라면 대부분 이 구절이 가리키고 있는 늘 벌어지는 집안 일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달씩, 심지어 몇 년 동안 주부들은 벽장이나, 지하실, 다락 등에다가 온갖 물건을 쌓아둡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집안 대청소를 해야겠다고 결심하면 그 물건들을 모조리 끄집어냅니다. 그러고는 인근의 자선단체에 전화해서 자기가 모아 놓은 물건들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7절). 솔로몬이 혹 끊임없이 변하는 패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떤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새로운 패션의 경향을 만들어내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옷깃이 터지든지 짧게 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과감하고 사람의 눈을 끄는 패션이 유행합니다만, 내일은 할머니 때의 구식 스타일로 다시 돌아가는 복고풍이 유행하게 되는 세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7절). 침묵을 지킬 때는 우리가 부당하게 비판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거짓되고 불친절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입니다. 모세는 자기 입술로 어리석게 말했기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했던 것입니다(민 20:10; 시 106:33).

말을 할 때는 어떤 대원칙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그녀가 말할 때가 이르렀다고 충고해 주었습니다(에 4:13,14). 그리고 그는 할 수만 있었다면 단테가 했던 다음의 말을 덧붙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8절). 우리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억지를 부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솔로몬은 이 말을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닌 세상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행동은 사랑하는 시기와 미워하는 시기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8절) 인간의 역사는 잔인하고 어리석은 전쟁들로 가득차 있고 그 사이 사이에 짙막한 평화기가 있는 것에 대해 쓴 기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의 마음 속에 떠나지 않는 의문은 수고하는 자가 자기의 모든 수고에 대해 얻는 항구적인 소득이 무엇이나는 것이었습니다(9절). 모든 건설 활동에 대해서는 결국 파괴하는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열네 가지의 긍정적인 일들은 열네 가지의 부정적인 일들에 의해서 상쇄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수확공식으로 표현한다면 14-14=0이 됩니다. 사람이 그 모든 수고를 하고 난 뒤에 남는 것은 '0'일 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셔서 일생동안 하게 하신 모든 활동과 직업, 추구를 다 철저히 조사해 보았습니다(10절). 자신의 조사 목록을 솔로몬은 2절에서 8절까지 밝혀놓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11절). 아니면 모든 활동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결론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모든 활동은 그 나름의 정해진 때가 있고 바로 그 정해진 때에 그 일은 가장 적합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인간의 마음 속에 영원을 두셨습니다. 비록 시간의 세계에 살고 있으나 인간에게 영원은 친숙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원을 생각하며 그 개념을 이해하진 못하면서도 이 세상 너머 끝없는 시간의 망망대해가 있을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과 그분의 길은 사람을 능히 깨우칠 수 있습니다.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창조와 섭리, 우주의 종말 같은 신비를 풀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엄청나게 진보했지만 우리는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한숨을 쉬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구나!” 라고 탄식하는지요.

사람의 인생이 변경할 수 없는 규칙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그가 하는 모든 활동이 결국은 그가 출발한 곳에 남게 만들어버리기에 솔로몬은 인생을 즐겁게 살고 가능한 즐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12절).

그렇다고 그의 말이 인생은 술취함과 방탕과 음란의 이수라장이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제일 좋은 것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즐기며 자기의 일상적인 일에서 낙을 찾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13절). 이러한 솔로몬의 견해는 인생을 저급한 수준으로 본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에는 절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관점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취한 것임을 계속 명심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결코 움직일 수 없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14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대로서 있게 될 것이며 그것을 사람이



더하거나 빼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정하신 것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게 훨씬 더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은 이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재연 되는 것에 불과하며, 이미 일어난 일 말고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15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속 반복되도록 정하시며 그리하여 같은 일이 몇번이고 거듭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은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그리하여 역사는 반복됩니다.

15절의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는 표현은 불신자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하기 위해 흔히 사용됩니다. 이것은 분명 사실입니다만 이 구절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은 역사를 또 다시 순환시키시기 위해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불러오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T. S. 엘리엇은 ‘4중주’라는 자신의 시에서 솔로몬의 이러한 심정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려던 것은… 이미 발견되었고  
한두번, 또 여러번 발견되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싸움만이 있을 뿐  
찾고 또 잃기가 끝없이 반복될 뿐.”<sup>1)</sup>

전도자를 괴롭게 한 다른 것들 중에는 부정부패가 있었습니다(16절). 그는 정의가 실천되어야 할 법정에 불의가 있는 것과 공의가 행해져야 될 정부관청에 거짓이 만연함을 보았습니다.

1) T. S. 엘리엇 저, ‘East Coker, 사중주’ 중에서(뉴욕:하코트 브레이스 야바노비치 출판사) 허락을 받아 인용.

이러한 인생의 부당한 행태를 보고 전도자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되며, 그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불의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17절). 솔로몬은 이 심판의 날이 사후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불법이 심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기에 그가 내린 결론은 오히려 때늦은 것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의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선과 정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옳은 일에 대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날을 요구합니다.

3장의 끝부분에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떠올리게 된 전도자는 죽음이야말로 흥을 깨뜨리는 기분 나쁜 존재요, 인간의 최고 야망과 노력과 낙을 끝장내고 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18절). 우리가 만일 성경의 비침을 받지 못했다면 그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죽음을 바라볼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견해를 말할 때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계시하셨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속마음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가 해 아래서 나름대로 내린 자신의 추리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적절한 교리를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거짓 이단들은 바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바로 3장 끝부분의 구절들을 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자는 것일 뿐이며, 악인이 죽으면 그것으로 완전히 멸절되고 만다는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들을 주의깊게 공부해 보면 솔로몬이 이단들의 그러한 가르침 중 어느 것도 옳

다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의 짧은 인간의 삶을 통해 그가 얼마나 약하고 덧없는 존재인가를, 짐승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는 사람은 짐승이 아니며, 어떤 점에서는 짐승보다 더 나은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짐승에게 임하듯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하기에 그렇습니다(19절).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같이 숨쉬지만 죽을 때는 숨이 끊기고 맙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창조의 질서상 하등한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허무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다 같이 무덤에서 생의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20절). 둘 다 같은 곳으로 가게 되며 그곳은 바로 흙입니다. 둘 다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일반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간의 몸이 인간생명의 전부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은 사람이 머무는 장막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볼 때 솔로몬이 장래에 대한 모든 진리를 알고 있었다고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솔로몬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한 질문, 곧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라?”(21절)라고 한 데서도 분명해집니다. 그의 이 말을 절대 교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추리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신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을 통해 우리는 믿는 자의 영과 혼은 죽을 때 그리스도

와 함께 거하러 가게 되며(고후 5:8; 빌 1:23), 그의 몸은 무덤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행 8:2). 불신자의 영과 혼은 하데스, 곧 음부로 가게 되며, 그의 몸은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눅 16:22,23). 장차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의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자기 영과 혼으로 더불어 결합하게 됩니다(빌 3:20,21; 살전 4:16,17).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몸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에 다시 부활하여 자기 영과 혼으로 더불어 결합한 후 불못에 던지우게 됩니다(계 20:12~14).

엄격히 말해서 짐승은 몸과 혼은 있어도 영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짐승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슬로몬은 자기가 전에 죽음에 대해 배운 것과 또 자기가 모르는 것으로부터 결론을 내리되 그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자기가 매일 하는 활동을 즐기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22절).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 이생에서 받은 분복이며,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거스리지 말고 순응하여 사는 길을 택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 자기 인생을 즐겨야만 되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

##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

시인 로버트·번즈는 “인간이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므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탄식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민감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다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저지르는 탄압을 보며 슬픔을 느꼈습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보고 심히 괴로웠습니다.

전도서 4:1을 볼 때 그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과 그 학대를 가하는 자들의 권세, 또 이 짓밟히는 자들을 지키려 하나 하나같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학대하는 자의 편이며, 아무도 감히 그 힘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의 우위 면에서 볼 때 “진리는 영원히 단두대 위에 있고, 불의는 영원히 왕위에 올라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로몬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는 것들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셔서 자기 백성을 감찰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sup>1)</sup>

그리하여 인생의 어찌할 수 없는 불의를 보며 개탄하던 솔로몬은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2절). 그가 볼 때는 죽음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꾀박과 잔인함에서 벗어날 수

1) 제임스 러셀 로웰 저, “현세의 위기”, 시 전집(Complete Poetical Works) (보스턴:휴튼 미플린 출판사, 1897), 67페이지

있는 반가운 비상구를 제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당시 그는 죽음에 담겨있는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즉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받는 최악의 고통을 훨씬 능가하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반드시 받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말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문제는 사후의 삶이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출생하고 난 뒤의 삶이 있느냐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솔로몬의 이러한 냉소적인 관점은 비록 죽은 자간 산 자보다 낫지만 아예 출생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부럽다고 한 데서 그 극에 달합니다(3절). 출생하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 해 아래에서 당하는 학대로 인해 미칠 지경이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인생이라는 이름의 행복으로부터 당하는 그 끔찍한 조롱”을 견뎌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을 궁지에 빠뜨린 것이 또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활동과 기술은 자기 이웃을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동기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4절). 그는 인생의 바퀴가 경쟁심에 의해 돌아간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남보다 더 좋은 자동차, 더 빠른 배, 더 호화로운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은 다 허무하게 보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기에는 합당치 않게 보였습니다.

유명한 중세 미술의 대가였던 미켈란젤로와 라파엘이 로마 바티칸을 장식하는 일에 그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도록 위촉을 받았을 때 그들 사이에 깊은 경쟁심이 타올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비록 두 사람은 각자 맡은 일이 달랐지만 서로 시기심이 너무나 강렬해져서 결국 서로 말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sup>2)</sup> 이 거장들보다 자기의 시기심을 감추는 데 훨씬 더 능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위

2) 헨리 G. 보쉬 남독, '일용할 양식'(그랜드래피즈라디오 성경강좌 발행, 1973년 5월 24일)

의 두 사람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경쟁의식이 오늘날의 많은 활동의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현대문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한 인사는 쓰기를, “나는 인생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한 사람이 행복을 얻어볼 양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부질없이 애쓰는 것뿐이다”라고 했습니다.<sup>3)</sup>

이렇게 그 행동의 동기와 보상이 시기심인 사람들과 대조되는 부류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게으름뱅이입니다(5절). 그는 손을 거두고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얼마 안되는 음식으로 연명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시기심과 탐심에 끌려다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기 이웃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지도 모릅니다.

자기 주위의 사람들은 광란의 경쟁에 빠져 헤어날 줄 몰라도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저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며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낫노라”고 합니다. 아니면 H. C. 류폴드가 이 구절을 풀어쓴대로, “더 많이 가지고 거기에 온갖 골칫거리를 얻느니보다 차라리 적게 가지고 마음 편히 살겠노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든 또 하나의 헛된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곧 혼자 살면서 계속 일하여 부를 쌓는 사람의 생각없는 광기였습니다(7,8절). 그 사람은 아들도, 형제도 가까운 친척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장래의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날이면 날마다 기진맥진하도록 일에 골몰하여 사는 재미라고는 한번 누려보지도 못한 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3) 빌 브라이트 인용, 『이제 혁명을』(산 베르나디노:CCC, 1989), 37페이지

그는 자기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아끼며 살고 있는지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보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찰스 브릿지스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두쇠(정말이지 이 사람에게 딱 맞는 이름이다)는 비참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수고하며, 돈을 긁어모으며, 고역에 고통하며 늙어버린 사람이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헛되고 비참한 인생살이냐고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황금을 탐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무정해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빠져드는 최후의 타락이다”라고 한 사무엘 존슨의 말은 분명 옳았습니다.

구두쇠가 이렇듯 외롭다는 것을 본 솔로몬은 동무와 짝이 있다는 것이 낫다는 점을 지적하게 됩니다(9절). 그는 네가지 실패를 들어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두 사람이 일하는 것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나은데, 왜냐하면 협력하면 더 능률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10절). 그러니 혼자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도와달라고 외쳐도 올 사람이 주위에 없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같이 하면 혼자서 자는 것보다 더 나은데, 그 이유인즉 같이 자면 서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11절). 물론 이러한 솔로몬의 주장에 대해 우리가 만일 같이



자는 사람이 발이 차갑다거나, 이불을 혼자 들들 말고 잔다든지 하면 무척 짜증이 난다고, 아니면 아예 전기 담요를 깔고 자면 자동으로 온도조절이 되니 추위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말하면 그 주장의 허점을 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사회적인 친교와 우정을 나누면 즐거움과 잇점들이 있다는 것이며 혼자서 고립되어 사는 사람은 그러한 점들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들고 있는 실례는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12절). 도둑은 집에 한 사람만 있으면 능히 힘으로 이길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있다면 이 도둑을 성공적으로 퇴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겹 줄은 한두 겹줄보다 더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삼겹으로 함께 끈 줄은 한 겹짜리 줄 세 개보다 세 배 이상이나 더 튼튼합니다.

인생의 우스꽝스러움과 헛됨은 가난한 노동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임금의 궁전에서조차 볼 수 있습니다(13~16절). 솔로몬은 가난과 징역살이한 전과까지도 극복하고 임금의 자리까지 오른 한 임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인이 된 마당에도 이 왕은 억척스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의 간함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난하더라도 가르쳐서 임금노릇을 할 수 있는 젊은이가 이 고집센 늙은 왕보다 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지배를 받는 모든 백성과 신하에 대해서, 또 이 나라의 권력 서열 제 2인자인 왕세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왕세자에게 물려듭니다. 이들은 이제 늙은 왕에게 싫증을 느끼고 있고 좀 더 나은 정부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뒤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새로 즉위한 왕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16절).

사람들이 이토록 변덕스럽고 또 새롭고 신기한 것을 바라는 것

을 본 솔로몬은 세상에서 아무리 최고의 영예를 얻은들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 5

## 종교적인 사람들과 부자들에게 주는 충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종교적이지만 그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종교적인 본능은 정말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종교심은 자기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스스로 보지 못하도록 감추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간이 나름대로 만들어낸 종교는 기껏해야 자기 과시의 수단일 뿐이며 내적인 실상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겉으로만 자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허영은 다른 어느 곳 못지 않게 종교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해 있으며 어쩌면 가장 허영이 심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솔로몬은 창조주와의 관계를 다루는 이 문제에 있어서 형식과 외형을 내세우는 일을 막기 위한 몇가지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들어갈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1절).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가져야 할 경외심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급히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배우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급한 약속은 어리석은 자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생각없는 사람들은 약속을 남발하면서 그것이 죄

인 줄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기도나 서원을 드릴 때, 또는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할 때도 경솔히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절). 전능자가 계신 곳은 사람이 경솔하게, 혹은 마지못해 입을 여는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이 사람보다 무한히 높으신다는 사실을 인해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자기 입을 제어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정신활동이 지나치면 꿈을 많이 꾸듯이 입이 너무 쉴새없이 떠들면 어리석은 말을 수없이 쏟아놓게 마련인데 심지어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3절). 18세기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우프는 “사람의 말은 나뭇잎과 같아서 잎이 가장 무성한 곳에서 의미라는 열매를 많이 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썼습니다.

필자는 솔로몬이 3절을 가지고 꿈의 기원에 대한 완전하고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낮동안 그의 마음 속에 맴돌던 상념의 수레바퀴와, 밤이면 자주 쉴새없이 뒤따르는 꿈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처럼 보이는 것을 단순히 지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그저 정직한 마음만 있다면 그 서원을 신속히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4절). 갑작스레 거창한 서원을 드리고는 이행하지 못하는 바보는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네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갚을 의도가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서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5절). 전도자는 사람들이 꿈쩍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성향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보통 이런 식입니다, “주님,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영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러나 이 위기가 지나가면 재빨리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의 성향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을 때에라도 사람은 헌신이나 독신, 혹은 가난하게 살겠다는 서원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서원을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특히 독신의 문제에 있어서 아예 그런 서원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그런 서원을 했다면 지켜야만 합니다. 결혼 서약은 하늘에서 재가를 받는 것이 분명하며 이 서약을 깬다면 값비싼 결과를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한 서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원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은 여러분의 입이 서원을 했다가 파기함으로써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6절).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건 실수로 한 것이라고,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변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혹은 하나님 앞에 기계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경솔하게 서원을 깨뜨린 죄가 덮여지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사자”는 제사장을 언급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서원을 어기면 제사장 앞에서 고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레 5:4~6).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하자면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솔로몬은 계시된 종교와 무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이 사자라고 말했을 때 이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나타난 기본적인 사상은 하나님께서는 말을 신실치 않게 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진

노하시도록 만드는 말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막으시고 실패하게 만드시며 좌절시키실 것이며,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꿈 속에 전혀 비현실적인 것이 허다한 것과 똑같이 어리석게 내뱉은 말 속에도 허무함과 패망이 들어 있습니다(7절). 솔로몬은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분을 의지하라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전능자의 노를 격발케하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G. 캠벨 모오건은 이것을 가리켜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아들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이 구절에서 본래 의도한 것보다 솔로몬이 더 신령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정의를 굽게 하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8절). 그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한 도(또는 지방)에서 보더라도 완전히 낙담하지는 말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통치란 그 명령계통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을 독수리 눈으로 보듯 날카롭게 살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이 균형과 견제의 체계가 무너지는 일은 너무나 빈번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들은 독직과 뇌물착복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얻는 유일한 만족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자보다 더 높이 계시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한 일을 그 앞에서 보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여기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필자에게는 9절이 이 전도서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같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 원어 자체의 의미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역본마다 이 구절을 다양하게 옮겨놓은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이익은 못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우리말 개역성경).

“더우기 땅에서 얻는 이익은 못사람을 위한 것이니 왕도 밭에서 나는 것으로 대접을 받느니라”(KJV).

“결국, 자기 밭을 일구는 왕은 그 나라에 유익하니라”(NASB).

“그리고 왕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느니라. 오, 자기 나라에 헌신된 임금이어! 오직 그만이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울 수가 있구나”(TLB).

“왕조차도 추수를 의지하느니라”(TEV)

“더우기 땅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왕도 밭을 의지하느니라”(JND)

이 구절의 일반적인 의미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밭의 소산물에 의지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더 원하는 것입니다(10절). 돈으로는 만족을 살 수 없습니다. 이윤이니 배당금이니, 이자 지급, 자본 수익 같은 것은 모두 더 벌려는 욕구만 더욱 부채질합니다. 이런 것은 다 헛되게 보입니다.

사람의 소유가 늘면 그에 따라 기식(寄食)하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경영 자문역, 세금관련 고문, 또 회계사나 변호사, 가정부, 혹은 가까운 친척들로써 공들여 쌓아놓은 그의 재산

을 소비합니다(11절).

사람은 한 번에 한 벌의 옷밖에 못입고 하루에 먹을 만큼만 먹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재산을 가진 것이 남보다 나은 점이라고 한다면 그저 자기 통장과 증권과 주식을 보면서 다른 어리석은 부자들처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눅 12:19)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단잠 자는 점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더 낫습니다. 잔치 음식을 먹든지 간단한 분식을 먹든지 간에 이 사람은 걱정이나 염려없이 쉴 수 있습니다(12절). 그가 사는 동네 건너편의 한 부자는 특하면 밤에 절도나 횡령을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해 하며 소확불망으로 인한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고통을 달래려고 위장약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재산을 쌓으면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13절). 여기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를 건설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그저 계속 쌓아두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주식시장 붕괴와 같은 큰 재난이 들이닥쳐서 돈을 모조리 잃고 말았습니다(14절).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에게 물려줄 것조차도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빈털털이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의 태 속에서 빈 손으로 왔다가 이제 빈 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15절). 평생동안 모을 수 있었던 그 엄청난 돈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거지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세실 로즈는 남아프리카의 천연자원을 탐사하느라고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회한에 사무쳐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것을 발견했다. 다이아몬드와 황금과 땅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걸 두고 떠나야 한다. 내가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구나. 나는 영원한 보화를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게 없다.”<sup>1)</sup>

16절에서 솔로몬은 이것을 가리켜 폐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곧 고통스러운 재난인 것입니다. 그 부자가 하려고만 했다면 자기 돈을 영원한 이익을 위해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세상에 왔을 때와 같이 빈 손으로 떠나갔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일을 많이 했지만 세상을 떠난 뒤에는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는 헛되이 수고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말년은 우울함과 슬픔, 걱정, 분노, 그리고 질병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17절). 그의 인생은 신테렐라의 인생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곧 부자에서 거지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죽을 때 모든 것을 남기고 간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도자는 사람이 돈을 유용한 목적에 쓸 수 있는데도 어리석게 돈을 모으기만 하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고 그 평생의 한 일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것조차도 없게 되는 어리석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상책은 날마다 하는 평범한 일들, 곧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18절). 이렇게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난들, 자기가 여태 누려온 즐거움을 빼앗

1) Choice Gleanings Calendar(그랜드 레피즈·가스펠 폴리오투판사).

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좋은들 지극히 짧은 것이기에 할 수 있을 때 즐기며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시고 동시에 그것을 누릴 힘을 주셨을 때 자기 분복에 만족하고 자기 일을 즐길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19절). 이런 식으로 조화를 이룬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이 짧다든지, 그 인생에 담긴 비극이니 불평등 같은 것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으로 하여금 현재의 환경을 즐기는 데 몰두하게 만드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20절).

## 6

### 이 세상의 잔인한 모순

**세** 상에는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잔인한 모순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논하는 말로 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원하는대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곧, 재산과 부와 명예를 베푸셨지만, 불행히도 이것을 누릴 힘은 그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1,2절).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부를 누릴 수 없게 하신 것에 대해 솔로몬이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생각보다 일찍 죽게 되어 자기가 가진 부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전 재산을 자기 아들이나 가까운 친척이 아닌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에게 물려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텅 빈 거품이나 악한 병같이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식솔들을 많이 거느리고 나이가 지긋하게 들도록 장수한다 한들, 만일 인생을 즐길 수 없다거나 죽어서 제대로 매장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받은 이런 복들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사람보다 낙태된 아이가 더 부럽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3절).

낙태된 자의 출생은 을 때도 사람이 아니고 떠날 때도 이름이 없습니다(4절). 그 이름이 태어나지도 않고 죽은 적도 없는 사람으로서 어둠 속에 덮여버립니다.

낙태된 아이는 해도 못보고 아무 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불쌍한 구두쇠보다는 더 낙을 누립니다. 그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인생의 모든 불법을 경험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5절).

그 구두쇠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면들, 인생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낙태된 아이와 똑같이 무덤으로 가는 운명인 것입니다(6절).

사람이 일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자기와 자기 가족의 양식을 사기 위함입니다(7절).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늘면 늘수록 더 많이 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만족은 막대기 끝에 매단 당근이 되어 먹으려 해도 영원토록 달아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헛된 추구를 하는 데에는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나올게 없다는 것입니다(8절). 그리고 한 가난한 사람이 나머지 세상 사람보다 인생의 처세술을 더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는 것보다 자기 앞에 놓인 매 끼니로 만족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했습니다(9절). 항상 더 많이 탐하는 생활, 즉 “참 만족을 찾아서 이것도 탐해보고 저것도 욕심내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sup>1)</sup> 이런 행동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인물이든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가

1) H.C. 류폴드 저, '전도서 강해'(그랜드 래피즈:메이커 출판사, 1952), 141 페이지

많은 적든 간에 자기 이름으로 불리어 왔습니다(10절).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아담이며 그 뜻은 “붉은 진토”입니다. 진토가 어떻게 창조자와 다룰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더 오래 변론하면 할수록 더 헛될 뿐이며 그 외중에 얻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11절).

솔로몬의 말을 따르자면, 단순한 한가지 사실은 이 그림자 같이 허무한 세상에서 무엇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12절). 그리고 아무도 자기가 죽은 뒤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 7

## 좋은 것과 더 나은 것

6 장 끝부분에서 씩씩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떤 것은 좋고 또 어떤 것은 더 나은 것 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7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사실 구약성경에서 '좋다, 더 낫다'라는 단어가 전도서 7장보다 더 많이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첫째로, 좋은 이름이 귀한 기름보다 더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좋은 이름은 사람이 홀륭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귀한 기름은 값비싸고 향내가 좋은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교훈은 가장 값비싼 향수라 하더라도 고매한 인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절). 이 구절은 솔로몬이 우리로 하여금 온갖 추측을 하게끔 만드는 말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이 말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잠언으로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좋은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라고 한 말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적용해볼 때 이런 그의

관찰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한 죄인들이 죽을 때는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 말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결론을 내리기를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 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2절). 죽음은 모든 인간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면으로 대면할 때, 갑자기 멈춰 서서 우리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될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사실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자신있게 맞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인생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은,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이기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구해주시는 구세주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히 2:14,15).

더 “나은 것”으로 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3절). 전도자는 진지한 것이 경박한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중대사들을 놓고 씨름하면 마음이 민첩해지지만 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쾌락과 잠시 동행했네.  
그는 줄곧 재잘거렸지.  
그러나 그가 내결을 떠났을 때  
난 조금도 더 지혜로워진게 아니었다네.  
그가 그렇게 많은 말을 했었는데도…  
나는 슬픔과 잠시 동행했네.  
그는 한 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네.

아, 그러나 많은 것을 나는 그에게 배웠다네.

슬픔이 나와 동행했을 때!”

(로버트 브라우닝 해밀튼)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기쁘게 됨이니라”(3절, ASV;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이 좋게’로 나와 있음—역주). 슬픔이 기쁨과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모순 중 하나입니다. 이단적인 철학가들조차도 고난과 슬픔은 치료하는 효능이 있음을 인정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사실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진리로 다가옵니다. 이 땅에서의 슬픔과 고난은 믿는 자의 인생에서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는 수단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층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믿는 자는 자기와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슬픔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보증입니다(롬 8:17).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누가 죽음을 당했어도 침착과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4절). 그는 슬픔과 압박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심각한 위기와 부닥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웃고 즐겁게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인생의 슬픈 소리들을 지나쳐버리려 합니다. 그는 애써 병원과 영안실 가는 것을 피합니다. 그 근원이 워낙 얇은 까닭에 만일 죽음과 같은 그런 무거운 인생의 압박을 받으면 버티고 서있을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은 것이 또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5절). 건설적인 비판은 훈계하고, 고쳐주고, 경고해줍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허무한 환락은 영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 소리는 숲 밑에서 가시나무의 타는 소리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소리가 요란하고 보기에 그럴듯하나 결국 오랫동안 간직할만한 가치있는 것은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6절). 불붙은 가시나무는 나무가 탈 때 나는 온갖 소리는 다 냅니다만, 쓸모있는 켈감은 되지 못합니다. 뜨거운 기운도 거의 없고 불도 금방 사그라져 버립니다. 다만 시끄러울 뿐 효율은 없고, 공허한 외양뿐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탐심에 눈이 멀어 남을 학대하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권력에 광분하고 균형감과 절제력을 잃고 맙니다(7절). 또 뇌물과 독직을 일삼는 자는 자기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일단 몸을 굽혀 뇌물을 받으면 편견없는 판단을 내릴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사물의 끝이 처음보다 낮게 보였습니다(8절). 그는 아마도 어떤 사업을 시작하자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엄청난 무기력이나 그 사업 초기에 나타나는 고된 일과 그에 따르는 징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칙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은 별다른 통찰력이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의로운 행실의 끝은 처음보다 낮지만, 죄의 끝은 더 나쁘게 됩니다. 옴의 나중은 처음보다 더 나았습니다(욘 42:12). 그러나 악인의 끝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히 10:31).

전도자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했는데 이는 더 근거가 확실한 말이었습니다. 인내는 매력적인 미덕인 반면 교만은 명백한 죄입니다. 인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합당하게 해주지만(롬 5:4), 교만은 그로 하여금 패망을 당하기에 마땅한 자가 되게 합니다(잠 16:18).

다음으로 우리는 급히 화내는 성향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9절). 이러한 자제력의 결핍은 그 사람이 지닌 인격의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한 사람의 인격을 재어보려면 그가 어느 정도의 일로 화를 내게 되는지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과 분노를 계속 간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불지각한 행동으로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어리석은 행동으로는 과거에 연연하여 사는 것입니다. 늘 옛날의 좋던 시절 타령만 하고 지금보다 훨씬 나았던 그날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고대한다면 우리는 공상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처지에 직면해서 좀 힘들더라도 당당하게 살아나가는게 더 낫습니다. 어둠을 저주하느니 촛불을 켜는게 더 낫습니다.

11절에서 지혜와 유산에 대한 솔로몬의 생각은 몇가지 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지혜는 유산을 겸하여 가지면 더 낫다(KJV, NASB)는 것입니다. 즉 지혜가 있으면 상속자는 물려받은 유산을 주의해서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지혜는 유산만큼 좋다는 것입니다(JND). 만일 지혜와 유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지혜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세번째로, 지혜는 유산만큼 좋은 것인데, 곧 재산을 얻는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는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들, 즉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한지는 다음 구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보호를 해주며 또 안정을 유지해준다는 점에서 돈과 닮았습니다(12절). 돈이 있으면 신체적, 재정적 손해보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반면에, 지혜는 여기에 더해서 도덕적, 영적 피해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돈보다 낫다는 이

유입입니다. 지혜는 그 가진 자의 물질적인 재산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보존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지혜시며, 그분을 찾게 되는 사람들은 생명을 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혜가 모든 것보다 무한히 뛰어나다는 것은 명백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 있습니다(골 2:3).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한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13절). 만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굽게 하시면, 누가 그것을 곧게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누가 그분의 뜻을 성공적으로 무산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명령은 아무도 바꿀 수 없고, 인간이 무슨 수단을 쓴다 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인생을 정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게 함이 적합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14절). 형통이 오면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을 즐겨야 됩니다. 곤고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 행복과 불행을 다 보내주시는데 그리하심으로써 사람이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비인 동시에 좌절케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섞으심으로써 사람이 그분을 힐난하지 못하게 만드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들 중 어느 것이든 간에 결론은 다 해 아래에서 내린 것일 뿐입니다. 혈과 육을 벗어나지 못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했고 모순되는, 정말이지 깜짝 놀랄 일을 목격하게 되면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세상에, 별일을 다 보았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15절에서 솔로몬이 한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며 그는 갖가지 모순을 보았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들은 일찍 죽고 악한 사람들이 늙도록 장수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전도자는 의와 축복 사이의 고정 관계를 찾을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죄와 형벌 사이에도 정해진 관계를 알아낼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상책은 극단을 피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16절). 이 알고 비성경적인 결론이 황금의 중도 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극단적인 의와 지나친 지혜를 피함으로써 일찍 멸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표준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요일 2:1).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각자의 일을 마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추리한 또 한가지 위험은 지나친 악이 있습니다(17절). 무모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수한이 다 차기 전에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중도정책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이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의와 같은 것들은 사람의 추리이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님이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묵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세우신 표준은 언제나 완전함입니다.

솔로몬의 견해에 따르면 최상의 결론은 이 사실, 곧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일찍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굳게 잡는 것이며, 또 그 반대의 경우인 무모할 정도로 악을 지나치게 행하면 스스로 파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결코 놓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18).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즉 중도주의를 지킴으로써)은 두가지 함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충고는 마치 죄와 의를 적절히 행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 아래서 인간이 관찰한 것에서 나온 충고일 따름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솔로몬의 이러한 세속적인 철학에 당혹함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열 명의 유사(치리자)보다 더 성음을 강하게 하며 더 잘 보호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19절).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단지 지혜가 무장한 힘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군대가 숫자만 많다고 반드시 그 편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20절이 “왜냐하면”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은(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음—역자주) 바로 앞에 나온 구절과 매우 중요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다 솔로몬이 묘사한 지혜의 잇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언제나 변함없이 선을 행하고 악은 결코 범치 않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20절은 온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인용되며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 이 구절은 “이제 막 솔로몬이 묘사한 그 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말해주는 것입니다”(류폴드).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해 건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비판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21절). 만일 우리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종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가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지 못하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사람됨을 더 잘 알게 되면 우리를 저

주할 게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아비새는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고 싶어했지만 다윗이 한 대답은 혹 시므이의 저주가 전적으로 이유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삼하 16:5~14).

우리는 또 자신이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 죄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22절). 우리는 마음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토록 불완전한데 다른 사람들은 완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은 완전주의자를 좌절시키는 요인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완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남에게 세워놓은 목표에 자기 자신도 도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기의 특출한 지혜를 사용하여 인생의 모든 면면을 다 살피고 조사해 보았습니다(23절). 그는 모든 수수께끼를 풀고, 열키고 설킨 난제들을 다 파헤칠 수 있을만한 지혜를 갖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모든 궁구함이 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솔로몬은 궁극적인 해답을 자기가 아무리 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계시가 없다면 인생은 여전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는 것은 멀고 먼 일이요, 접근할 수도 없고 엄청나게 깊은 일입니다(24절). 이 세상은 온갖 수수께끼로 가득차 있습니다. 미지(未知)라는 영토는 탐험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수수께끼와 대답하지 못한 갖가지 의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비록 찾지는 못했지만 솔로몬은 더 위

대한 지혜와 인간의 방정식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는 자기의 노력을 조금도 굽히지 않은채 참고 계속해 나갔습니다(25절). 그는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이라는 것, 즉 왜 사람들이 음행과 수치에 자기를 내맡기는지를 알고 싶어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솔로몬은 특별히 창녀에 대해 생각해보았는데, 그는 이런 여자는 죽음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고 여겼습니다(26절). 이 여자의 생각은 온통 남자를 울무에 빠트릴 계략으로 가득차 있으며 그 손아귀에 빠져들면 마치 쇠사슬과 같이 묶인 몸이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여자의 그물을 피할 것이나, 죄와 놀아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여자의 길을 지날 것이며 그 손아귀에 걸려들고 맙니다.

여기서 이 여자는 이 세상이나 아니면 이 세상 지혜의 표상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골 2:8; 약 3:15).

필자에게는 27절에서 29절까지가 솔로몬이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실망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솔로몬은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자 그 희망이 삼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솔로몬의 이상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을 만나고 싶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에는, “그 사람을 더 잘 알아야겠어.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돈독한 우정을 쌓아나가야 되겠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될수록 그는 더 환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혀 낮은 사람이란 존재는 없으며 친해지면 그 사람을 경히 여기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어느 정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어느 정도 자기 희망을 성취했다고 여길만한 친구들이 전부 몇명이나 되는지 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가 여태 알고 지내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은 몇 명이나 진짜 “둘도 없는 친구”로 여겼을까요?

그는 완전한 사람을 찾고 또 찾았지만 단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은 다 어떤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인격의 약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모든 것은 선한 사람은 드물고 선한 여인은 그 중에서 더욱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일천명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자기의 이상에 근접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은 곧 헌신적이고 믿을 만하고 남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정도면 그래도 탁월한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고 여길만한 인상을 주는 여인은 일천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28절). 이토록 충격적인 솔로몬의 남성우월주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또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기독교적인 원칙과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정통 유대인에게는 솔로몬의 그런 남성우월주의가 충격적이지 아닐 것입니다. 또 여자를 노예나 재산으로 여기는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충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석을 쓰는 사람들은 솔로몬이 여기서 사용하는 거친 말의 강도를 완화해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리저리 해석을 시도하지만, 좋은 의도로 한 그들의 노력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자가 한 말이 진심에서 나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을 지닌 전 세계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공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여자에 대한 관점은 터무니없이 치우쳐 있습니다. G. 캠벨 모오건은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여기에 대해 보다 균형잡힌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여자의 영향력은 좋은 면에서든지 아니면 나쁜 면으로든지 아주 강력하다. 나는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에 속하는 어떤 사람이 인간 역사에서 인류의 지위를 높이게 되었던 어떤 위대한 운동도 여자가 깊이 관련되지 않고는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이 정도로 강한 최상급 표현을 써도 무리가 안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믿기로는 여기에 진리의 위대한 요소가 들어있다고 본다. 여자가 인류를 타락하게 만드는데 가담한 역할은 끔찍한 것이었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실이다. 한 나라에서 여자의 품행이 뛰어나면 그 나라는 건고하다. 여자의 품행이 타락하면 이 나라의 운명은 암울하다. 여자는 선과 악의 마지막 보루다. 연민과 잔인함은 여자가 단연 뛰어나다.”<sup>1)</sup>

솔로몬은 나중에 세계 문학에서 여자에게 바치는 가장 뛰어난 찬사의 글 중 하나를 씀으로써 자기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것은 곧 잠언 31장입니다. 전도서에서 그는 인간의 편견이라는 땅 위의 들판에서 글을 쓰지만, 잠언 31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높은 봉우리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 오게됨으로써 여자는 기쁨을 갖추고 존경을 받는 데까지 그 지위가 최고 절정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여자의 가장 참된 친구요 해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실망했던 일을 곰곰히 생각하던 솔로몬은 결국 사람은 원래의 지음받은 상태에서 떨어져 타락했

1) G.C. 캠벨 모오건 저, '말씀의 빛'(런던:올리펀츠 출판사, 1970), 217페이지.

다는 올바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29절). 이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많은 죄악된 피를 내었고 그로 인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타락한 상태에 있지만 인간은 완전을 찾으려는 본능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며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직업, 완벽한 모든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나 혹은 자기에게서도 완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찾아다니는 인간의 궁구함이 “해 아래”라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은 오직 한 분의 삶이 존재할 뿐인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해 위에 계시며 높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을 바라는 인간의 갈망을 그리스도로 만족시켜 주십니다. 어떤 다른 이도, 어떤 다른 것도 아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 8

## 지혜 중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써 자기 문제를 풀지 못했으면서도 솔로몬은 여전히 지혜로운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여겼습니다(8:1). 지혜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물의 숨겨진 이치를 알아낼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전도자이자 왕인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지혜는 사람의 외모에서조차도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은 광채가 나고 그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여 부드럽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임금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데, 그 임금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것들을 되풀이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 후반부의 히브리 원어는 모호한데, 이는 다음 번역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우기 하나님께 한 맹세를 생각해서”(KJV).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NASB).

여기서 맹세는 정부에 충성을 맹세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한 맹세로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임금들로 통치하게끔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시편 89:35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의 모호함은 3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임금이 불쾌한 기색을 비칠 때는 지체하지 말고 그 앞을 물러나와야 한다는 것을 충고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화를 내거나 불순종하거나 무례하게 굴었을 때 급히 빠져나가려 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 둘 때 급히 나가려 하지 말라는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KJV, NASB).

이 구절에서 주고 있는 교훈이 왕을 화나게 말라는 것이고 그 이유인즉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큰 권세를 지녔기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왕이 말할 때는 언제든지 그 말을 권세가 뒷받침해줍니다(4절). 그의 말은 최고의 권위를 지니며 신하들의 도전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왕이 화를 내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5절). 지혜가 사람에게 왕의 칙령에 복종하는데 있어서 그 때와 절차에 대해 적절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올바른 방법과 그릇된 방법이 있고 또 적합한 때가 있고 적절치 못한 때도 있습니다(6절). 사람을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는 이러한 운명의 순간들을 항상 바르게 식별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은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7절).

사람은 자기 영혼이 떠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게 될 정확한 날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8절). 사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망이 사람을 죽이

려고 잔인하게 일으키는 전쟁이라면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악을 행하더라도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솔로몬이 해 아래서,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짓밟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곳”(9절)에서 관찰한 것들의 일부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이토록 알팍한 것입니다(10절). 악인은 죽어서 매장됩니다. 그는 예전에 예배하는 곳으로 여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가 죽자 사람들은 그가 악한 계획을 일삼던 바로 그 도시에서 그가 보여주었다는 경건함에 대해 그를 칭찬합니다. 종교는 이렇게 한 사람의 거짓됨을 은폐하는 가림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악한 범죄에 대해 재판과 형벌이 끝없이 지체되면 무법을 더 부추기고 사법제도를 엷신여기게 만드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합니다(11절). 모든 피고가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지 만, 피해자를 희생하면서 범죄자를 과보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정하고 무사공평한 정의가 신속하게 구현된다면 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별다른 이유없이 심판을 미루면 범죄자들이 법을 어기겠다는 결심을 더 굳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전혀 처벌을 안받거나 최소한 가벼운 형만 받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비록 솔로몬은 예외로 보이는 경우를 몇번 보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믿었습니다(12절).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비록 오래 살더라도, 이런 예외 때문에 의인은 결국 보상을 받고 불의를 행하는 자의 길은 험하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악인은 결국 패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13절).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써 스스로 일찍 목숨을 잃는 운명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이 덧없습니다(KJV).

솔로몬은 일반적인 원칙과 명백한 예외들을 번갈아가며 떠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14절). 그리고 어떤 때는 마치 범죄자가 정직하고 훌륭한 시민인양 상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땅한 일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므로써 철학자이자 왕인 솔로몬으로 하여금 인생의 헛됨을 인해 역겨움을 느끼게끔 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있어서 유일한 논리적인 결론은 할 수 있을 때 인생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15절).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주신 일평생 동안 수고하며 살 때에 사람의 곁에 있게 됩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늘에서 즐거움을 누리자는 철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여기 이 세상에서 지금 자기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해답이란 해답을 다 찾는데 몰두했습니다(16절). 그는 철학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지성을 단련했습니다. 인생의 활동 맨 밑바닥까지 가보기로 결심했는데, 이렇게 하자면 밤낮으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깨닫지 못하도록 세상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17절). 사람이 아무리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애를 써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9

## 죽기 전에 마음껏 누리라

9장에서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살펴본 다음에 가능한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1절). 하지만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표적인지 아니면 미워하시는 표적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는 전혀 알려져 있지도 않고 알 수도 없으며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르는 전도자가 기록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롬 8:28; 히 12:6).

인생을 이토록 수수께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 선과 악,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결국엔 똑같은 장소에서 인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곳은 바로 무덤입니다(2절).

죽음을 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선한 사람이 악인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는 사람이나 맹세를 회피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죽음이 결국에는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데려간다는 이 사실은 인생의 엄청난 재난입니다(3절). 사람은 광란의 삶을 미친 듯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죽음이 모든 생명의 최후라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은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래도 기대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4절). 그런 의미에서 살아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개는 사람의 제일 가까운 친구로서가 아니라 가장 열등한 동물, 곧 동물 중에서 가장 천한 종류로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기품이 있는 동물입니다.

최소한 살아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5절).

이 구절은 거짓 교사들이 영혼이 죽으면 잠을 자는 것이고, 마지막 호흡이 취해감을 받으면 의식이 끊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아니면 전도서를 가지고 사후에 대한 교훈의 토대를 세우려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듭 강조해온 바와 같이 전도서는 “해 아래서” 해답을 찾으려는 사람의 제일 좋은 결론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관찰과 논리에 기초해서 이끌어낸 결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없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으레 이와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의 몸이 무덤으로 내리워지는 것을 볼 때 그 몸이 결국엔 흙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제 끝이구나. 내 친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친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활동도 즐길 수가 없군. 그는 다 잊어버렸고 곧 사람들에게 잊혀지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이지 솔로몬은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또 다른 인간적인 감정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6절). 그 사람은 이제 다시는 이 세상의 어떤 활동이나 경험에도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전도자는 자기의 근본적인 결론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누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먹을 것을 즐기며 솔로 마음을 유쾌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7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인정하셨고 혹 어찌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밝은 옷을 입고 상복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8절). 그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지 말고 향수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은 재미있게 놀고 즐기라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솔로몬도 이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생활에서 누리는 즐거움도 가능한 최대로 누리야 한다고 합니다(9절). 인생은 헛되고 공허한 것이기에 그저 제일 상책은 최대로 인생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즐기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리함으로써 여러분의 수고와 고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창조에 대해 쓴 기록인 길가메쉬 서사시에 나오는 구절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인간을 창조한 이래로

신들은 사람을 위해 죽음을 예비했도다.  
 그 손에 생명을 붙들고 있도다.  
 오, 길가메쉬여, 당신의 배를 채우소서.  
 밤낮으로 즐거워 하소서.  
 날마다 기쁨을 선포하시고,  
 밤낮으로 분노하시고 즐거워 하소서.  
 당신의 의복이 빛나리이다.  
 당신의 머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물로 씻으소서.  
 당신의 손 안에 취할 자녀들을 원하소서.  
 당신의 품속에 있는 아내를 즐기소서.”<sup>1)</sup>

전도서와 이 시가 유사하다는 점의 중요성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베꼈다는 것에 있지 않고 해 아래 있는 사람의 지혜는 결국 서로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데 있습니다. 필자가 데니스 알렉산더가 쓴 휴머니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요약한 글을 읽었을 때 이 사실이 특히 인상깊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모델은 삼킬만한 아주 큼직한 알약처럼 보인다. 20세기 후반을 살아가는 30대가 안된 세대를 대표해서 나는 순전히 어쩌다가 혁명적으로 생명의 발생이 일어났다고 하는 가설을 믿으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고 있다. 이 생성방법의 유일한 전제조건은 물질과 시간과 우연이 존재하는 것이다. 무언가 이상한 변덕스런 운명의 장난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자기 존재를 의식하게 된 유일한 물리적인 구조가 되었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은 백년만 지나면 내 몸의 원자와 피차 구별할 수도 없도록 부패하게 마련인 몸을 놓고 토끼나 나무, 혹은 돌 따위와 같은 다른 물리적 구조보다 어떤 면으로 더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게끔 되어

1) 길가메쉬 서사시, H. C. 류폴드 인용, 전도서 강해, 216페이지

있다. 더 나아가 내 머리 속에서 진동하고 있는 원자의 질량이 토끼 머리 속에 있는 질량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다고 믿게끔 되어 있다.

“동시에 나는 죽음은 이 우월한 선의 끝이라는 말을 듣는다. 진화의 시간적인 규모로 보자면 나의 생명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수증기다. 내가 이생에서 무슨 정의나 불의의 감정을 지니고 있든간에 내 모든 투쟁과 내 최대의 결단들은 결국에는 시간의 끊임없는 행진 속에 삼키운 바 될 것이다. 그것은 몇 백만년이 지나 지구의 역사 전부와 비교한다면 그저 한 방울의 수증기에 불과할 뿐이다. 가장 위대한 문학, 가장 위대한 생애의 추억도 모든 것은 부패하고 만다는 냉혹한 열역학 제2법칙을 따라 부패 속에 매장되고 만다. 히틀러, 마르틴 루터, 제임스 소우얼, 아씨의 프란시스, 모택동 주석, 로버트 케네디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아무 생각없는 허공 속에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나쁜 일을 그나마 최대한 선용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내가 초월적인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그저 진화의 우연한 산물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골치 아픈 문제들을 잊어버려야 되고 사회에서 책임있게 살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몰두해야 한다. 비록 내가 사람의 뇌를 다른 자연의 기계들과 같이 무슨 기계인 것처럼 연구해야 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인간이 동물의 가치보다 본래 더 뛰어난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되며, 비록 내 감정은 내게 그제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믿어야 될 객관적인 이유를 내가 추가로 받은 것이 더 이상 없다.”<sup>2)</sup>

10절은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 중의 하나로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봉사를 하는데 있어 열심과 부지런을 나타내도

2) 데니스 알렉산더 저, '과학을 초월하여'(Beyond Science), 132,133페이지. 라이언출판사 허락을 받아 인용함.

특 격려할 목적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고는 건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의 문맥으로 볼 때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붙잡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무덤에서는 일할 수도 없고 발명도, 생각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무덤으로 가는 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이 구절이 주고 있는 충고는 탁월한 것이지만 그 충고를 하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나쁜 것입니다. 또한 이 충고조차도 그 자체로 합당하고 도움이 되고 덕을 세우는 활동에만 국한되어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관찰한 것으로 또 하나는 운과 요행이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11절). 달음질하는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항상 우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용감한 병사라 하더라도 전쟁에서 늘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지혜롭더라도 진수성찬을 늘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대통령 자리에 늘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이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끈질기게 따라 다닙니다. 시간과 우연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백만장자 J. 폴 게티는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못하구요.”

불행이 닥쳐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12절). 그물 속의 물고기나 밧에 걸린 새처럼 불행이나 죽음은 갑작스럽게 사람을 덮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총탄에 맞을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는 지혜가

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13~15절). 이것의 예로, 옛날에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성읍이 있었는데 인구가 적은만큼 방비도 매우 허술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한 힘센 나라의 왕이 대포로 이 성읍을 포위하고 성벽을 부수고 돌진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자 가난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한 남자가 이 성읍을 구할 방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순간에는 영웅이었지만, 이내 잊혀진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혜가 힘보다 더 뛰어난데도 그 가난한 지혜자의 충고가 결국 조롱을 받고 말았다는 것은 전도자의 마음을 심히 슬프게 했습니다(16절). 위기가 지나가자 그 성읍을 구하고자 그 사람이 말해야 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관심을 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는 분명 복음과 관련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읍은 사람의 영혼과 같습니다. 작고 무방비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임금은 사단이고 침략과 파괴를 일삼는 자입니다(고후 4:4 엡 2:2). 그 성읍을 구한 사람은 구세주인데 가난하고(고후 8:9), 지혜로우신 분입니다(고전 1:24; 골 2:3). 그분은 구원의 길을 주셨으나 사람들은 그분을 얼마나 존중하지 않고 그분께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지요! 세상 사람 대부분은 구주께서 마치 죽지도 않으셨던 것처럼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구주께서 명하신 대로 즉 주의 만찬을 통해 그분을 기억하는 일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토록 배은망덕하고 무관심해도 조용히 말한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이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가 소리치며 호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음은 여전히 사실입니다(17절). 지혜는 병기보다 낫습니다(18절). 사무엘하 20:14~22에서 우리는 요압이 벤마아가 아벨이란 성읍을 포위했을 때 한 여인이

어떻게 그 성음을 구하는지를 읽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망쳐놓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이 한 죄많은 바보가 지혜로운 사람이 이루어 놓은 많은 선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 10

##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초상화

**파** 리가 향수나 향유에 빠져 죽으면 악취가 나게 만듭니다(10:1). 여기서 인간행동을 우화로 빗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와 명예에 대해서 명성을 쌓을 수 있지만, 단 한번의 실수로 그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경솔한 행동 하나는 기억하면서도 수년동안 이루어놓은 값진 공적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느 누구나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단 세마디만 해버리면 그의 평판은 끝장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일반적으로 더 능숙하고 왼손을 쓰기는 더 어색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재주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2절).

우매한 사람은 그저 길을 가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을 할 때조차도 상식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다닙니다(3절).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바보라고 말해주는데, 이것은 그가 남들은 다 자기 말고는 바보라고 부른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서 자기가 무지한 자임을 보여준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후자의 뜻인 것 같습니다.

만일 주권자가 여러분에게 분을 퍼붓는다 하더라도 화김에 사표를 쓰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4절). 온유하고 순종적인 처사가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군주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심각한 실수를 예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뒤죽박죽인 세상에서 솔로몬을 괴롭힌 또 한가지 모순은 치리자들이 어리석게 내린 결정과 불의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5절). 적합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채 관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반면 유능한 사람들이 하찮은 일에 자기 재능을 허비하고 있기도 합니다(6절).

그러므로 종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군주들은 걸어서 여행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7절). 이런 불공평은 정치에도 있고, 군대에도, 종교생활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도량을 파는 사람들은 자기의 악독에 희생되게 마련입니다(8절). 이를 가리켜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돌담을 허무는 자는 불법 침입이든 아니면 나쁜 짓을 할 목적에서든, 혹은 토지 소유경계선을 바꾸려는 의도에서든 간에 뱀에 물리거나 뿔가 다른 불쾌한 방법으로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인 활동에도 위험이 따라다닙니다(9절). 석공은 돌에 부상당할 위험이 있고 별목하는 사람은 도끼에 다칠 위험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연장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9절). 그렇지 않으면 일을 끝내는데 훨씬 더 많은 수고가 들기 때문입니다. 도끼를 가는데 드는 시간은 나중에 절약한 시간과 노력으로 보상을 받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혜는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수고를



덜어주는 묘안을 제공해줍니다.

“지혜는 성공으로 가는 길을 예비해준다”(류폴드).

만일 주문을 외기 전에 뱀이 물면 그 술객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11절).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가치를 얻고 효과를 거두려면 제때에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은총을 받게 합니다(12절). 어리석은 자의 말은 그 사람을 멸망하게 만드는 것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매한 자가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농담으로 말을 꺼내더라도 말을 끝마칠 무렵엔 광패를 일삼고 있습니다(13절).

우매한 자는 언제 말을 멈추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설세없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설세없이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설세없이 떠들어 대는 말속에는 자기가 장래 무엇을 하겠노라고 자랑하는 말도 거의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눅 12:18,19)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약 4:15)고 말하라는 충고를 따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일해서 기진맥진하게

됩니다(15절). 그의 눈에는 명백한 것조차도 보이지 않으며 성음과 같이 눈에 띄는 곳으로 가는 길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 사람은 비를 피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들조차도 모르고 있기에 그가 장래를 위해 세우는 계획은 더욱더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임금이 미성숙하고 어린애같이 마음이 쉽게 동하고 그 대신들이 자기 직무에 충실하기는 커녕 아침부터 흥청망청 술을 마시는 그 나라는 불쌍한 나라입니다(16절).

복이 있는 나라라고 하면 그 임금이 인격이 뛰어나고 고귀한 사람이며 그 대신들은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기력을 보충하려고 먹음으로써 예의범절과 자제력을 나타내는 나라입니다(17절). 계속해서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태만히 하면 집을 무너지게 만드는데 그 집이 정부이든 아니면 개인의 일생을 나타내는 것이든 관계없이 결과는 마찬가지로 됩니다(18절). 주인이 정기적으로 보수하지 않으면 어느 집의 지붕이라도 비가 새게 마련입니다.

식사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19절). 포도주는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은 범사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돈이 모든 낙을 누리는 열쇠라고 믿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단지 돈이 있으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중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는 의미로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혹 16절에서 술 취한 임군들이 자신들의 지나친 방탕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에 대해 경고를 받았을 때 입으로 낸 말을 그저 인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18절). 누군가 말했듯이 사실 돈은 천국만 제외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만능여권이며 행복을 제외하고는 뭐든지 줄 수 있는 요술단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풍부함에 있지 않습니다.

왕이나 그 수하의 돈 많은 신하들을 저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0절).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벽에도 귀가 있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어떤 새가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궁궐에 고해다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함은 절로 날개가 돋히는 습관이 있습니다.”

## 11

## 선을 주위에 퍼뜨리라

**11** 장 1절에서 빵은 그 원료인 곡식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진다는 표현은 홍수지역에 씨를 뿌리는 관습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바다에서 곡물 무역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든 간에 여기에 들어있는 사상은 좋은 것을 널리 그리고 대량으로 배분하면 추수 때에 풍성한 보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복음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나눌 때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거두게 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두가지를 암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절제하게 관대한 처사이고 또 하나는 사업체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2절). 첫번째를 의미한 것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계산을 따지지 말고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재난과 불행의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돈을 저축합니다. 이 구절은 인생은 불확실하니까 아끼지 말고 후히 베푸는 마음을 가지라고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혹 이 구절에 담긴 사상은 한가지 일에 인생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쏟지 말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에 투자를 해서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나머지 사업으로 계속 꾸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업의 다각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절은 앞 구절의 사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한 땅 위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인생이 어떤 불가피함과 최종적인 것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비가 가득한 구름이 땅에 그 비를 다 쏟아서 텅 비게 되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고통과 고난은 인간에게 임하고 탐니다. 또 나무는 일단 쓰러지면 쓰러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나무의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넓게 적용한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나무는 쓰러지듯이 반드시 누우며,  
 사람은 살아있듯이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은 죽듯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리라.  
 영원한 세월동안.”  
 (존 레이)

사람은 지나치게 조심할 수도 있습니다(4절). 조건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으레히 바람도 좀 불고 구름도 있게 마련입니다. 바람이 전혀 없는 상태를 기다린다면 밭에 씨 한번 뿌려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비가 올 가능성이 전혀 안보일 때까지 기다린다면 농작물은 추수하기도 전에 다 썩어버릴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기다리게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얼마 안되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대충대충 꾸려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5절). 우리는 바람의 움직임을 알지 못하며(NASB), 영혼이 어떻

게 태아 속에 들어가며(TLB), 임신한 여인의 태 속에서 뼈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KJV)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것을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므로 하루를 온갖 생산적인 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최상이라고 전도지는 말합니다(6절). 어느 일이 성공할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혹 우리가 한 일이 다 성공할 수도 있으며, 혹은 다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들이 다른 방법들 보다는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여전히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봉사를 함에 있어 지치지 말고 융통성을 지니며, 슬기롭고,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한 인생의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나태해져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고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빛은 젊은 날에 밝고 빛나는 날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다는 것, 곧 건강하고 힘세고 활력이 넘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동안 정력적이고 성공하는 삶을 누리더라도 사람은 흑암의 때가 거의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8절). 노년의 고통과 수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황망하고 공허한 때입니다.

9절이 진실한 충고인지 아니면 환멸에 가득찬 노인의 냉소적인 한마디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간에 그 교훈은 할 수 있을 때 청춘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할 수 있는한 많이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

남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시리라는 것, 즉 노년에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노년에 심판하시는 것은 솔로몬에게 젊은 날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 12

## 인간 육체의 쇠퇴

**전** 도서 12장에 나오는 구절보다 노년을 더 탁월하게 묘사한 것은 어떤 문학에서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 구절들은 장수학(長壽學) 학회지의 편집자로 하여금 비판에 잠기게끔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구절들은 비유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곧 휘청거리는 한 노인의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온갖 노인병(老人病) 박물관이요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아무 저항도 못한 채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년과 노쇠함에 대한 서글픈 그림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젊었을 때에 자기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경고입니다(1절). 솔로몬이 주나, 구주, 또는 구속자라고 하지 않고 창조자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해 아래서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한 충고는 훌륭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인생의 황혼이 지기 전, 때가 악하고 잔인하며 낙과 즐거움을 누리기에는 세월이 너무나 짧을 때에 자기 창조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젊은이들의 갈망은 토마스 H. 질이 쓴 다음의 시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기력이 왕성할 때에, 내가 주를 위해 강해지리이다.  
 각 사람이 자기 나름의 소중한 기쁨을  
 얻으려 뛰어다닐 때에  
 내 노래가 주께 높이 상달되리이다.

나는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주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주의 사랑을 고백하리이다.  
 나는 내 힘이 떠나게 아니하리이다.  
 그때 내가 주를 섬기고 있음을 증거하리이다.

날개 달린 듯이 열심을 내어 분주히 다니지 아니하리이다.  
 이 세상의 심부름을 하자고 그리하지는 아니하리이다.  
 나는 하늘의 언덕에서 수고하리이다.  
 지친 발을 천천히 끌며 수고하리이다.

오, 나의 희미한 열심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옵나이다.  
 나의 부족하고 천한 부분은 주를 위한 것이 되지 않으리이다!  
 나의 시들어가는 불꽃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옵나이다.  
 다 타버린 내 마음의 재는 주를 위한 것이 아니옵나이다.

오, 나의 황금기에 나를 택해주소서.  
 나의 소중한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젊은 날의 영광은 주를 위한 것이니이다.  
 내 온전한 마음이 오직 주를 위한 것이니이다.”<sup>1)</sup>

노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 빛이 흐려지는 때입니다(2절). 낮은 쓸쓸하고 밤은 기나깁니다. 절망과 우울함이 떠나지 않습

1) 토마스 H. 켈 저,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송에서(시카고인터바시티 출판사, 1947), 26장

니다.

비 뒤에는 구름이 돌아옵니다. 젊었을 때에도 비, 곧 고생과 낙담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그래도 해가 나타나서 심령이 금방 다시 생기를 회복하곤 했습니다. 이제 늙자 햇빛 나던 시절은 지나가고, 비가 한번 올 때마다 구름이 나타나는데 이 때마다 구름이 더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도 더불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노인의 몸은 짐으로 비유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3절). 집을 지키는 사람은 손과 발을 나타내며 한 때는 강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주름지고 뼈마디가 굵어졌고 파킨슨씨 병으로 인해 떨리고 있습니다.

힘있는 자들은 다리와 장딴지를 말하는데, 끈지도 않고 강하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마치 몸무게를 감당못해 휘어지듯 팔호 모양으로 구부러진 모습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칠 것입니다”(KJV). 즉 윗니가 남은게 너무 없어 아랫니와 짝이 맞지 않으므로 이가 더 이상 음식을 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치과 의사가 보면 윗니와 아랫니가 잘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시력이 나빠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2중 초점 안경이 필요했지만, 나중에 3중 초점 안경을 쓰게 되고, 결국 백내장 수술을 받게까지 됩니다. 이제는 돋보기를 써서 가장 큰 글자만 드문드문 읽을 수 있을 뿐입니다.

길거리의 문이 닫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귀를 말하는 것

입니다. 모든 말을 끝없이 되풀이해 주어야 됩니다. 맷돌소리 같이 큰 소리도 너무 낮고 또렷하게 잘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노인은 불편증으로 고생합니다. 새들이 맨 먼저 지저귀고 수탉이 우는 꼭두새벽부터 노인은 잠이 달아나고 맙니다.

노래하는 여자들은 모두 쇠하게 됩니다. 나이들어 그 성대가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불안정하며, 노래는 아예 불가능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인들은 고소공포증이 심해져서 이제 높은 데가 무서워지는데 사다리를 올라가건, 아니면 높은 건물이나 비행기를 타고 밑을 내려다 볼 때건 간에 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5절).

그리고 길에서는 놀란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혼자 나가거나 밤에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꽃피는 살구나무는 일반적으로 흰머리를 묘사할 때 쓰는데 이 꽃은 처음에는 만발했다가 나중에 다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메뚜기는 두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메뚜기는 짐이 될 것입니다(KJV). 즉 아무리 가벼운 물건이라도 노인이 운반하기에는 너무나 무겁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몸을 질질 끌며 다니는 메뚜기(NASB)는 허리가 구부러지고 비틀비틀 위태롭게 발걸음을 옮기는 노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식욕이 줄어들거나 아예 식욕이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원욕은 그칩니다. 음식은 더 이상 맛도 없고 구미도 당기지 않습니다. 다른 기본적인 욕구도 시들어 갑니다. 성적인 욕구도 사라졌습니다. 살구나무 꽃은(NASB) 최음제로 쓸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욕

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노쇠해 가는 과정은 사람이 죽음과 무덤이라는 영원한 고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 장례행렬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충고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향아리가 썸 결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합니다(6절). 여기에 나온 모든 비유들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은줄이 풀린다는 것은 생명의 약한 줄이 끊어지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때는 바로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때입니다. 소경 시인 페니 크로스비는 다음과 같은 시를 통해 자신이 이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은줄이 풀릴 때  
더 이상 지금처럼 노래하지 못하리  
그러나 내가 깰 때에  
그 기쁨 한량 없겠네.  
왕이신 주님의 궁전에서.”<sup>2)</sup>

금그릇은 두개골을 의미한다고 이해되는데, 금그릇이 깨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에 정신활동이 멈춘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깨어진 주전자와 바퀴는 심장확장과 수축시 정상적인 혈압조절

2) 페니 J. 크로스비, ‘은혜로 구원받아’, 전리와 찬미의 찬양에서(포트 닷지, 아이오와: Gospel Perpetuating 출판사, 1971), 621장

기능이 고장나 제 기능을 다 못하는 순환기 계통을 언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며, 결국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7절). 솔로몬에게는 적어도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가 내린 결론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경우에는 그 영혼이 음부(하데스)로 가며, 거기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뒤에는 영혼이 몸과 합해져서 그 사람의 전체가 불못으로 던지우게 됩니다(계 20:12~14).

그리하여 솔로몬은 이렇듯 인생사를 한바퀴 죽 둘러보고 나서 결국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데, 해 아래 인생은 헛되고 의미없고 무익하며 공허하다는 근본적인 가르침을 여전히 설파하고 있습니다(8절). 이렇듯 처음과 같은 말을 서글프게 되뇌이는 솔로몬을 볼 때 우리는 시장에 가서 너무 오래 지체했던 그 어린 소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그 음악이 영원토록 계속 연주되었으면 했죠.  
 내가 시장에 너무 오래 있었나요?  
 나는 그 광대가 언제나 재치있는 사람이었으면 했어요.  
 내가 시장에 너무 오래 있었나요?  
 나는 머리를 묶으려고 파란 리본을 샀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게 관심을 주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전목마가 이제 점점 느리게 돌고 있네요.  
 내가 시장에 너무 오래 있었나요?”

나는 축제가 벌어지는 그 도시에 살고 싶었어요.

웃음과 사랑이 온 사방에 가득한 그곳에 살고 싶었어요.  
 나는 내 친구들이 재치가 있기를, 날 신나게 해주기를 바랬어요.  
 나는 누군가 내게 관심을 주길 바랬지요.  
 내가 산 푸른 리본은 내 눈엔 참 눈부시고 새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푸른 빛깔이 아니군요.  
 회전목마는 이제 날 놀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시장에 너무 오래 있었나요?  
 이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없고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아요.  
 내가 시장에 너무 오래 있었나요?”  
 (빌리 바안즈)<sup>3)</sup>

여기서 솔로몬이 해 아래 인생의 헛됨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르러 필자는 E. 스탠리 존스가 곧잘 이야기하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배 위에서 그는 뚝뚝한 부부를 보았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은 소의 얼굴 같았으며 쉬지 않고 먹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은퇴하여 많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상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특급 서비스를 안 해준다고 웨이터들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사이 사이에 주리지나 않을까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식욕만이 단 한가지 중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식사 시간 사이에 앉아서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다음 식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어느날 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멍하니 어딜 쳐다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 이

3) 빌리안즈 저, '나는 시장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홀리우드타일러슨 음악출판사, 1957) 1957년 타일러슨 음악 출판사 판권소유. 허락을 받아 사용했음.

남자의 우둔한 머리 속에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올랐나 봅니다. 그는 벽난로 쪽으로 가더니 꽃병을 집어 들고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다시 오면서 무슨 뉴스마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꽃병이 텅 비었어!’ 이것을 보고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옳았습니다. ‘텅 비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텅빈 것은 단지 꽃병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영혼과 머리가 텅 비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갑에 돈은 많았지만 인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벌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걱정거리가 없었지만 그들은 인생이 너무나 지루했습니다. 모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기에 그랬습니다. 그 배 들래는 점점 늘어났지만 그 시야는 점점 좁아졌습니다.”<sup>4)</sup>

자기 혼자 지혜로운데서 그치지 않은 전도자는 자기 지식을 남들과 나누었습니다(9절). 그는 자기 지혜를 주의깊게 심사숙고해보고 정확한지 시험해 본 후에 이것들을 잠언의 형태로 전수해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말을 조심스럽게 했으며, 위로와 기분을 좋게 해주며 동시에 참된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10절). 그의 이러한 노력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준비해서 파슬리를 그 위에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와 같아서 분명하고 직설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말합니다(11절). 그리고 한 목자에게서 받은 말을 모아놓은 것은 잘 박힌 못이나 핀과 같아서 천막을 안정시켜 줍니다. 이 못들은 힘을 제공해주며 또한 말뚝이 되어 우리의 생각을 그 위에 댈 수 있게 해줍니다.

4) E. 스펀리 존스, ‘하나님의 나라는 실재인가?’(Is the Kingdom of God realism?, 내쉬빌:에빙턴 북스베리 출판사, 1940).

대부분의 성경역본들은 목자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번역자들이 목자를 하나님을 언급한다고 이해하고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 사람들의 사고는 왕을 목자로 여긴다는 것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호머는 말하기를, “모든 왕들은 백성의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이 자기를 일컬어 한 목자라고 부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번째 해석이 여기 문맥 속에서는 더 자연스럽습니다.

솔로몬이 이 주제를 철저하게 공부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12절). 하려는 마음만 있었다면 더 글을 쓸 수 있었겠지만, 솔로몬은 자기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책을 더 써 본들 결과는 매양 똑 같을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출판하는 것은 끝이 없고 그 책을 다 읽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왜 굳이 쓰고 읽으려 합니까? 그래봐야 그 책을 통해 밝혀지는 것은 다 인생이 헛되다는 것 뿐일텐데”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을 보게 되면 그가 마침내 해 위로 올라갔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13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과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노예처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령이 반드시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음에 본능적으로 써놓으신 아무 계명이라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솔로몬의 말이 높은 수준의 영적인 통찰력을 지닌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그저 한 지혜로운 사람이 본래 타고난 직관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부입니다. 단지 전 의무만이 아니라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기본 요소들입니다.

전도서의 끝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동기는 다가오는 심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14절).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를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하셨음을 믿는 자들로서 영원히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요일 4:18).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마치신 사역을 통해 결코 우리에게 심판이 없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확신이 있습니다(요 5:24).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겐 정죄가 없네.  
 나에겐 지옥이 없네.  
 그 고통과 불을  
 내 눈이 결코 보지 못하리.  
 나에게는 형벌이 없네.  
 나에게는 사망의 찌르는 것도 없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그 날개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네.”  
 (폴 게르하르트)

## 부록 1

## 솔로몬이 구하던 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솔**로몬은 궁구했으나 결코 만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가 시도해본 어떤 것이라도 만족을 했다는 암시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실, '만족'이란 단어는 이 책에서 단 한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솔로몬이 인생의 참 만족을 찾는데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해 아래서 찾고 있었으며 해 아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인간의 마음을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 해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의미가 애매하고 신비적이며 구체적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왜 해 위로 올라가야 하며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오직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게 됨으로써 영원토록 지속되는 평안과 낙을 즐길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며 이런 우리의 생명대로 인생을 미처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떠한 성취감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핵심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창조자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뜻하지 않은 방해가 찾아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처음의 그 아름답던 광경은 변했습니다. 교제는 깨어졌습니다.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께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때부터 거리감과 적대감이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아담은 그 모든 후손에게 반란과 죄악을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분리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 사랑하기를 그만두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죄를 눈감아주시거나 무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공의는 모든 죄에 대해 형벌이 내려질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형벌은 곧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스스로 치루어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를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혼자만 남는다면 우리는 구제불능이요 절망적이며, 그저 다 지옥에 마땅히 가게 될 후보인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오직 갈보리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대표가 되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치루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로서 죄인

들을 위해 피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드님의 사역을 만족하셨음을 보이시기 위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높이드사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번째 질문, 곧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6에서 이 질문에 답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화목하려 한다면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는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고, 절망적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막연하게 그분이 그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깨달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결정적인 단계에 다다르게 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행동으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그 모든 죄의 가책과 더불어 제하신다는 것과 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실 것을 철저히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께 나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

어야 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정말이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내가 영원토록 견뎌야 했을 형벌을 날 위해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소망은 일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기로 결심하나다.”

이렇게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는 거듭나고, 구원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대적하는 것이 끝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에 가장 깊은 모든 갈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해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참된 희락의 근원이십니다. 그분만이 홀로 사람이 사는 목적과 죽을 때 밝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은 마침내,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시오”(시 107:9)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은 물론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출생하고 나면 성장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와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반드시 더 쉬워지는 않고 오히려 더 훌륭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햇빛과 같아서 새벽에 비취기 시작하여 정오 무렵에는 찬란하고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매력적인 삶이며 갈수록 놀라운 일이며 그 기쁨이 점점 더 커가는 삶입니다.

스텐리 존스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 후로 늘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 참으로 현명했다는 사실을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 부록 2

### 나의 전도서

**필**자는 솔로몬이 자랑한 것같이 인생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던 바 참다운 인생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소망이 없는 끝으로 보지 않으며, 끝이 없는 소망으로 여깁니다. 내 인생의 특징은 헛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 쫓아다닌 것이 아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멋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시 16:6).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랐다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시 23:5,6).

나는 만족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고 온전한 만족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목마른 영혼을 만족케 하셨고 좋은 것으로 내 주린 마음을 채우셨습니다(시 107:9).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에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인 지식은 실망적인 것이었고 주님을 위한 나의 섬김은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

나 이에 대해 그분을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이 마음이 바라는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물려 받을 자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고전 3:22,23). 이것이야말로 만족을 가져다 주는 참된 부입니다. 그러나 또다른 의미에서도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재산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거의 없다는 점에서 나는 부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처럼 나는 돌볼게 거의 없는 사치를 누려왔습니다. 나는 그 갈릴리에서 오신 그분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시고 입고 계시던 옷밖에는 아무것도 남기시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테니). 그리고 이렇게 탐심이 없는 것은 나로 하여금 돈으로 살 수 없는 만족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놀랍게 섭리하신 모든 것에 대해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나는 육체의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몇 번이나 죽을 뻔한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한때 내가 몸이 너무나 허약해서 내 모친이 내가 누워있는 침상에서 눈을 돌리셨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안 보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는 나의 육체에 볼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의학의 법칙을 다 따르자면 나는 이미 소경이 되어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자비를 베푸셔서 불가능한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보통 사람보다도 더 많은 책을 여태껏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합당치 않은 자에게 베푸신 감당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드님을 나의 죄를 지신 대속물로 죽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을 믿음으로써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지나더라도 이것을 내가 다 이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과 특하면 방황하려는 나의 성향, 그리고 안팎으로 몰려드는 유혹의 무서운 힘을 생각할 때에 나는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주인을 섬긴 특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님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눅 19:21). 그 대신에 나는 그분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내하시며 용서하시며 관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히브리 종과 같이 나는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합니다. 내가 상전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출 21:5)고 말입니다.

내가 체험했던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생각해 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연이나 확률의 법칙에 따르자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또한 나는 성경에서 발견한 보화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금이 많이 나온다는 캐나다의 콜론다이크에서 금덩어리를 발견한 사

람이 느끼는 환희도 내가 성경에서 새로운 교훈을 발견했을 때 누린 즐거움과는 결코 견줄 바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그 분의 가족들과 나는 교제와 우정을 통해 어떻게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셨는지 생각해 볼 때 감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불쌍한 사람을 전도에서 일으키시며 잿더미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앉도록 해주셨습니다(시 110:7). 나는 옛날 한 성도와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교제가 땅의 존귀한 자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던지요!

이것이 내 인생에는 슬픔이라고는 없었다는 뜻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나도 남못지 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거나 뜻없이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목적이 있었고 가르침을 주었고 나를 훈련시켰습니다.

질병과 육신의 장애도 역시 찾아 왔었습니다. 바울처럼 나도 세 번이나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 주시라고 기도했지만 그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여기던 어떤 것을 회복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평한다면 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그분의 길은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이 있게 될지(물론 여기엔 슬픔, 질병, 육체의 손상 등도 포함됩니다) 선택할 수 있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 말고는 다른 것을 원치 아니했을 것입니다.

내가 비판이나 심지어 배반당하는데서 면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비판의 많은 것이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나머지는 기록

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이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배반조차도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배반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는 잃어버린 모든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여행하는 특권을 누렸던 것을 자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영원한 예수님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도 만난 즉시로 우리들의 마음은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했고 이 사랑의 교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집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임을 입증해 왔습니다. 나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도를 백배나 받은 사람입니다(막 10:30).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내 인생은 참 매력적인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놀랍다고들 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과는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나는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밟는 발걸음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상황을 바꾸시는 것과 환경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증은 “그분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칙경은 다 평강이라”는 것입니다(잠 3:17). 나의 노래는 “나를 지도하신 손을 송축함이어 계획하신 그 마음을 송축함이로다”입니다. “비록 일곱 번을 죽을뻔 했어도 값진 여행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누리지 못한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라는 질

문이 자주 떠 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항상 같습니다. “아무것도 바랄게 없다.” 내 주님께서서는 내게 좋은 모든 것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아직도 헛되고 낭비된 인생을 살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인간이 “자기 소망과 두려움이 다 꿈이요 헛된 꿈을 발견한다”는 것을 깨닫고 슬픔에 잠기는 윌리엄 카우퍼의 시에 나오는 상처입은 사슴과 같은 심정입니다.

### 상처입은 사슴

나는 무리를 떠난 상처입은 사슴이었네.  
 그 뒤로 많은 세월이 지났네.  
 많은 화살이 깊이 박혀서  
 내 허리는 고통으로 숨이 가빴네.  
 내가 도망가 멀리 그늘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려 했을 때  
 거기서 나는 한 사람을 만났네.  
 그분도 활잡이들에게 상처받으신 분이셨네.  
 그분의 옆구리와 손과 발에는 끔찍한 흉터가 남아 있었네.  
 내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부드럽게 그 활들을 뽑아 주셨네.  
 날 고치시고 살아 나게 하셨다네.  
 그때 이후로 아는 사람도 없고 외딴 조용한 숲속에서  
 나는 방황하네.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들은 예전에 사람들이 봄비던 곳에서 나의 짝이었었지.  
 이제 여기서 나는 마음껏 생각에 잠긴다네.  
 몇 번이고 사람들의 생각과 관습을 돌아본다네.  
 나는 모든 사람이 방황하며 길을 잃었음을 보네.

다 각기 속아서 다니는 것을 본다네.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바 되었네.  
마음 속에 그리는 상상의 행복을 좇아서,  
여전히 바라나 결코 얻지 못한 행복을 찾느라 골몰하네.  
철새 없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지.  
그들은 여전히 성공할 것이라고 꿈을 꾸다네.  
그들은 여전히 실망할 뿐이라네.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며 찾아 보지만  
헛될 뿐이라네.  
인류의 절반을 더하고  
거기에 남아 있는 절반의 삼분의 이를 더해서,  
그들의 소망과 두려움을 합해보니  
꿈이요, 헛된 꿈임을 발견한다네.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역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입문편/BBC)  
O. J. 길슨/128면/값 3,500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1차편/BCT)  
O. J. 길슨/136면/값 3,600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성장편/ACT)  
O. J. 길슨/138면/값 3,500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완성편/ACT)  
O. J. 길슨/152면/값 3,6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 시리즈(일대일 양육)-교사용  
O. J. 길슨/88면/값 2,6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 시리즈(일대일 양육)-학생용  
O. J. 길슨/82면/값 1,0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 시리즈(결혼 생활)  
O. J. 길슨/64면/값 1,8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 시리즈(제자 훈련)  
O. J. 길슨/128면/값 3,5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 시리즈(교회 생활)  
O. J. 길슨/128면/값 3,500원

BCT 목상 훈련 시리즈-미대복음  
장영민/150면/값 2,500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 사용설명서  
O. J. 길슨/80면/값 1,000원

매일 성경 OT-사사기·룻기  
최기관/208면/값 4,000원

매일 성경 OT-사도행전·히계  
최기관/258면/값 5,000원

Table with 16 empty rows for additional book listings.

영광의 구원세상

참새기 연구(삼)  
해리 M. 모리스/432면/값 8,500원

사사기 빛기 강해  
사두엘 리도우트/418면/값 6,500원

에스라 드헤마야 에스더 강해  
H. A. 아이먼사이드/304면/값 4,300원

메시아 시편 강해  
T. 에니스트 윌슨/204면/값 3,200원

잠언 강해  
H. A. 아이먼사이드/400면/값 6,500원

이기서 강해  
H. A. 아이먼사이드/144면/값 2,800원

사도행전 강해(삼)  
존 해럴드/320면/값 4,800원

사도행전 강해(하)  
존 해럴드/418면/값 5,200원

로마서 강해  
H. A. 아이먼사이드/172면/값 3,300원

갈라디아서·에베소서 주석  
잭 헌터. 알버트 러키/336면/값 5,500원

빌립보서·골로새서 주석  
시드니 맥스웰. 토마스 헨틀리/416면/값 8,500원

히브리서 강해  
윌리엄 로저스/160면/값 3,000원

대살로니기전후서 주석  
에니스트 윌슨·토마스 스티븐스/272면/값 5,000원

요한계시록 강해  
어거스트 반 린/264면/값 4,500원

야고보서 강해  
알버트 맥웨인/112면/값 2,000원

선지서 개요  
윌리엄 맥도널드/240면/값 4,000원

Table with 16 empty rows for additional book listings.

### 전도서 강해

---

- 발행일 : 1996년 8월 20일 1판1쇄 발행
  - 저인이 : 윌리암 맥도날드
  - 옮긴이 : 김대영
  - 발행인 : 이치일(E. Ritchie)
  - 발행소 : 전도출판사(등록No.4-41)
  - 연락처 :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호
  - 전 화 : (0344) 914-2732
  - 팩 스 : (0344) 917-4520
- 

- 정가 : 2,800원
- 
- 과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ISBN : 89-7531-516-9 03230